

일본의 運氣學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A Study on Five Circuits and Six Qi Learning of Japan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e three nations of far Northeastern Asia, namely China,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a tradition of Asian medicine within a common cultural realm. Studying Japan's Yunqi not only helps our understanding of Japanese traditional medicine, but the course of development taken by the three nations' traditional Asian medicine as a whole.

Methods: All books relating to Yunqi published in Japan were studied, with special focus on books that are especially more important.

Results: It is assumed that Japan's first book on Yunqi is 吉田宗桂's Ungiileonjib. The Japanese mainstream study on Yunqi is the annotations and studies on Suwenrushiungilunao, written by Liuwenshu. YunQiLunAoKouYi is the first annotation on Suwenrushiungilunao and had the greatest impact. Yunqilunjujie is an annotation book written by a Confucian scholar, and *Yunqilunaoshuchao* an annotation book composed by a Confucian doctor who was a thorough expert on sinology and the annotations ranged greatly from medical books, Confucian books, historical books and hundred schools of books. Aotouyunqilun is the most slight in terms of annotations compared to other annotation books, and Yunqilunaoyanjie is special in that it writes with both Chinese characters and Japanese language in order to help easier understanding by the novice scholars.

Conclusions: Suwenrushiungilunao includes astronomy, geography, delivery sound, calendar, the eight trigrams, the Twelve laws, Shier chen, Constellation of twenty eight, Thirty-six birds, and secret days, which is leading to further study in these fields. Suwenrushiungilunao also contains excerpts from Suwen Liujiechangxianglun to describe the algorithm of the operation of Sun and Moon, which is also leading a further study in the field.

Key Words: YunQiLunAoKouYi(運氣論奧口義), YunQiLunJuJie(運氣論句解), YunQiLunAoShuChao(運氣論奧疏鈔), AoTouYunQiLun(鼈頭運氣論), YunQiLunAoYanJie(運氣論奧診解)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y@dku.ac.kr

Received(April 23, 2018), Revised(May 5, 2018), Accepted(May 10,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일본에서는 21세기 초부터 박물관에서 일본의 방대한 고전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2006년 茨城大學 人文學部の眞柳 誠은 『日本の醫藥博物著述年表』(増訂版)을 완성하여 보고하였다.¹⁾ 이 속에는 일본에서 간행된 모든 의서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분류된 책들은 의학 10720종, 침구 478종, 본초 1816종, 약물 1876종이 있었다. 여기에서 運氣學서적은 의학류로 분류되었고 모두 15종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吉田宗桂의 『運氣一言集』,
室町時代(1336~1573)의 寫本인 『運氣私鈔』,
回生庵玄璞의 『運氣論奧口義』와 『運氣論奧得助圖』,
鵜飼石齋의 『運氣論奧句解』(付圖),
吉田宗恂의 『運氣論一言集』(抄),
松下見林의 『運氣論奧疏鈔』,
三屋元仲의 『運氣論奧纂要全解』 三卷, 『圖說』 三卷, 『或問』 一卷, 『附錄』 一卷,
淺井周伯高弟述 松岡玄達(恕庵)筆錄인 『運氣論講義』,
三屋元仲의 運氣纂要圖說 七冊(運氣纂要附錄과 運氣論纂要或問이 붙어 있다),
岡本一抱의 『運氣論奧診解』,
香月啓益의 『運氣論奧算法俗解』,
志津大二郎의 『素問入式運氣解』,
森立之의 『運氣七篇古鈔本考異』.

위의 三屋元仲의 기술에서 살펴보듯이 書名이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칠게 작성되었고 따라서 빠진 서적들도 많이 있으리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眞柳 誠 본인도 “서적의 不統一과 서명, 년대의 혼란 및 중복 등이 예상된다”고 하였다.²⁾ 그렇지만 이 자료는 소중한 자료로서 일본

운기학의 개략적인 정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筆者는 최대한 일본의 운기학 서적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서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대순에 따라 回生庵玄璞의 『運氣論奧口義』와 『運氣論奧得助圖』, 鵜飼石齋의 『運氣論奧句解』와 『運氣論圖解』, 松下見林의 『運氣論奧疏鈔』와 『論奧辨證』, 저자를 알 수 없는 『鰲頭運氣論』, 岡本爲竹의 『運氣論奧診解』와 『年中運氣指南』, 그리고 香月啓益의 『運氣論算法俗解』의 10種의 서적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중에는 유운서가 쓴 『소문입식운기론오』에 대한 주석서 5種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소문입식운기론오』의 원문을 기술하고 주석을 번역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는 目錄을 기술하여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 내용을 번역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서 언급한 서적 외에 일본에서 간행된 운기관련 서적의 목록을 도표로 만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목록에서 비록 運氣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天文, 氣象, 占卜, 曆法에 관한 서적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것은 일본문화의 하나의 현상으로 日人들이 運氣의 개념을 확대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運氣로 명명된 책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II. 일본의 대표적인 운기서적과 그 내용

1. 運氣論奧口義

『運氣論奧口義』와 『運氣論奧得助圖』의 저자인 玄璞의 생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玄璞은 法名이고 字는 可敬이며, 號는 回生庵·昨非齋³⁾이다. 東福

1) Mayanagi Makoto. The Chronological Table of Japanese Writings on Medicine, Pharmaceutics, and Natural History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square.umin.ac.jp/mayanagi/paper01/ChronoTabJpMed.html>.

2) Mayanagi Makoto. The Chronological Table of Japanese Writings on Medicine, Pharmaceutics, and Natural History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square.umin.ac.jp/mayanagi/paper01/ChronoTabJpMed.html>.

3)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覺今是而昨非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행위가 옳고,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그

寺의 승려로 曲直瀨玄朔 문하의 醫者이다. 玄璞이 지은 石山寺渡御記及開帳記를 보면 天正(1573) 18년에 태어났고 本書(石山寺渡御記及開帳記)를 55세에 지었다고 했으며, 卒年은 未詳이다.⁴⁾

『運氣論奧口義』는 上·中·下·一·二의 四冊으로 되어 있다. 上은 運氣論奧의 처음부터 論生成數 第十까지이고, 中은 論五天之氣 第十一부터 論南北政 第二十까지이고, 下·一은 論大小氣運相臨同化 第二十一부터 論六病 第二十八까지이고, 下·二는 앞에서 모두 『素問入式運氣論奧』라고 한 것과 달리 『運氣抄』卷之下二라고 되어 있고 論六脈 第二十九부터 五行勝復論 第三十一 끝까지이다. 序文은 없고 下·二의 끝에 다음과 같이 스스로 쓴 글이 있다.⁵⁾

元和 丙辰年(1616년) 봄에 東福寺의 俊甫, 玉峯 두 스님과 一華堂 切臨 등의 사람이 薩의 禪侶(禪 수행을 하는 道伴)인 字 尙何, 이름 玄昌에게서 『運氣論奧』를 수강하였다. 그리하여 나도 末席에 참여하여 그가 전하는 것을 갖추어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근래에 尊師인 延壽院 法卯 東井叟 玄朔(曲直瀨玄朔)의 註解를 本으로 하고 禪侶의 說을 標로 하며 古人의 일본어 구결을 經으로 하고 어리석은 나의 口義를 緯로 하여 本文의 옆에 기록하여 全으로 삼고 다음으로 『得助圖』를 지으니 대개 좁은 소견으로 뒷사람을 참람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운기론오』 卷末에 붙여 찾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대비하였다. 圖와 全이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몽매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할 뿐이다.(元和 丙辰 春에 東福 俊甫 玉峯 兩和尚과 一華切臨 等 衆이 講於薩之禪侶하니 字는 尙何오 諱는 玄昌이라

然而予汚其末席하야 具得其傳 故로 今也에 間嘗竊本於尊師 延壽院 法卯 東井叟 玄朔之註解하고 標於禪侶之說하며 經於古人之鈔하고 緯於至愚之口義而 本論傍에 織之하야 以爲全하고 次著得助圖하니 蓋管見을 不憚僭上하고 附之運氣論 卷末而備搜覽者也라 其圖全也는 不顧世之嘲哂하고 唯欲使蒙昧知焉而已라)

위의 내용을 보면 玄璞은 1616년 玄昌에게서 『運氣論奧』를 배웠고 또 그의 의학사승인 曲直瀨玄朔(號 東井)에게서도 運氣學을 배웠으며 玄朔도 『運氣論奧』에 대하여 註解를 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筆者는 아직 玄朔의 運氣論奧에 대한 註解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의 글은 1635년 乙亥年에 쓴 글임으로 『運氣論奧口義』가 이해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玄璞은 1573년에 태어나 63세가 되는 1635년에 口義를 완성하고 그 이후까지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運氣論奧口義』의 論五行生死順逆 第一의 五行에 관한 註釋을 통해 口義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論五行生死順逆 第一

【口義】 오행은 木火土金水이고 生死는 五行勝復의 뜻이고 順은 相生이고 逆은 相克이다.

五行의 相生 相剋은 其理昭然하니

【口義】 그림과 같이 運氣論 全冊에는 모두 오행 상생·상극의 이치가 밝고 분명하여 더 말할 것이 없다.

十干 十二支와 五運六氣와 歲月日時가 皆自此立하야 更相爲用하나니라

【口義】 10干은 甲乙이 木의 陰陽이 되고 丙丁이 火의 陰陽이 되고 戊己가 土의 陰陽이 되고 庚辛이 金의 陰陽이 되고 壬癸가 水의 陰陽이 된다.

12支는 亥子는 水에 屬하고 寅卯는 木에 屬하고 巳午는 火에 屬하고 申酉는 金에 屬하고 丑未辰戌은

뒀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승려인 회생암의 철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4) 岩瀨文庫藏書, 和書-文學, 西尾市岩瀨文庫 / 古典籍書誌データベース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s://trc-adeac.trc.co.jp/WJ11E0/WJJS06U/2321315100/2321315100100010?hid=ht054100>.

5) 玄璞, 運氣論奧口義, 古書. 本書는 古書임으로 출판사, 출판년도를 알 수 없고 페이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서도 출판사, 출판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 古書라고 기술하였다.

土에 屬한다.

오운은 甲己는 土運이고 乙庚은 金運이고 丙辛은 水運이고 丁壬은 木運이고 戊癸는 火運이다.

육기는 子午는 少陰君火이고 丑未는 太陰濕土이고 寅申은 少陽相火이고 卯酉는 陽明燥金이고 辰戌은 太陽寒水이고 巳亥는 厥陰風木이다.

歲는 甲子로부터 癸亥까지 司天:在泉과 오운에 태과불급이 있는 것이다. 月은 月建이 있는 것이니 상세한 것은 제 13에 있다. 日은 納音이 있는 것이니 第4에 보인다. 時는 遁甲이 있는 것이다. 10干, 12支, 오운, 육기, 歲月日時가 모두 이 오행으로부터 확립됨을 말한다. 번갈아 가면서 서로 작용한다는 것은 時가 쌓여 日이 되고 日이 쌓여 月이 되고 月이 쌓여 歲가 되어 오행의 상생 상극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妙用이 되는 것이다.

在天則爲氣니 寒暑燥濕風이오 在地則成形하니 金木水火土니 形氣相感而化生萬物하나니 此造化生成之大紀也니라 原其妙用하면 可謂無窮矣리라

[口義] 「天元紀大論」에서 “在天爲氣하고 在地成形하니 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라” 하였다. 王氷注에서 “氣는 風熱濕燥寒을 말하고 形은 木火土金水を 말하니 이것이 造化가 生成하는 큰 기틀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르는데 유운서가 經文에 왕빙주를 넣어 쓴 것으로 그 筆이 오묘함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는 氣가 되니 氣는 六氣이다. 暑가 심하면 熱이 되니 따라서 六氣를 말할 수 있다. 유운서는 여기서 地의 오행의 相對로 五氣를 말한 것이다. 形氣相感이라는 것은 「天元紀大論」에서 “神이 하늘에서 風이 되는 것은 땅에서는 木이 되고 神이 하늘에서 熱이 되는 것은 땅에서는 火가 되고 神이 하늘에서 濕이 되는 것은 땅에서는 土가 되고 神이 하늘에서 燥가 되는 것은 땅에서는 金이 되고 神이 하늘에서 寒이 되는 것은 땅에서는 水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늘의 五氣와 땅의 五形은 서로 같은 것끼리 感應하여 萬物을 化生한다. 만물의 數는 11520이니 이것은 乾坤二策에서 나온다. 化生이라는 것은 만물이 모두 時에 生長化收藏을 이룬다는

뜻이다. 造化라는 것은 四時가 轉變함을 말한 것이다. 사실상 造化의 오묘한 경지는 볼 수가 없고 그 氣가 往來屈伸하는 것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계 진씨가 말하기를 “造化의 자취는 음양이 流行하여 천지간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生成은 「繫辭」에서 말하기를 “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이라고 하였다. 程子가 말하기를 “天一로부터 地十까지 합하면 天數가 5이고 地數가 5니 위의 簡編은 그 차례를 잃은 것이다. 天一은 生數이고 地六은 成數이다. 위의 다섯 개가 있으면 바로 아래의 다섯 개가 있어 두 개의 다섯 개가 합하여 陰陽之功과 萬物變化와 鬼神의 作用을 이룬다.”고 하였다. 張子가 말하기를 “鬼神은 二氣의 良能이다”라고 하였으니 天地의 음양 二氣가 相感하여 草木, 禽蟲에 이르기까지 빠짐 없이 모두 化生하니 이것이 모두 造化生成의 大紀이다.

紀는 『韻會』에서 綱이라고 하였으니 大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신묘한 작용을 파헤쳐 본다(原其妙用)는 것은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해가 오면 달이 가고 봄에 생하고 여름에 長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 하는 것이다. 오묘한 작용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古往今來에 무궁무진하다.

木은 主於東하고 應春이라 木之爲言은 觸也며 冒也니 陽氣觸動하여 冒地而生也라 水流趨東은 以生木也오 木上發而覆下하니 乃自然之質也라

[口義] 四時를 음양으로 나누면 봄, 여름은 양이 되고, 가을, 겨울은 음이 된다. 氣라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나 사물의 본체가 되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봄에 양기가 저절로 觸動하면 만물이 모두 땅을 뚫고서 생명을 내는데 그 근본은 水이다. 따라서 겨울에 寒水가 봄의 양기를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木을 生한다. 水生木하기 때문에 봄에는 초목이 위로 싹을 發生한다. 혹은 枝葉이 무성해서 아래를 덮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질이다. 『韻會』에서 “質은 主也라”고 하였으니 文采를 베푸는 것이니 봄에는 만물이

發生을 주장하여 각각 그 문체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火는 主於南하고 應夏라 火之爲言은 化也며 火毀也니 陽在上하고 陰在下하야 火毀然盛而變化萬物也니라 鑽木作火는 木所生也나 然이나 火無正體하고 體本木焉이니라 出以應物하고 盡而復入하니 乃自然之理也니라

[口義] 燬는 ‘訖’와 ‘委’의 반절음이니 불이 왕성하다는 뜻이며 또 맹렬한 불이다. 陽在上 陰在下라는 말은 王翰林의 33難 楊氏註에서 이르기를 “甲은 木으로 陽이고 乙은 草로 陰이다. 丙은 火로 陽이고 丁은 灰(재회)로 陰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東井(玄璞의 스승인 曲直賴玄朔의 號)이 “陽在上은 불꽃이 타고르는 모습이고 陰在下는 灰炭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피건대 陽火在上은 炎熱이 심한 것이고 陰寒在下는 샘물이 찬 것이다. 이로써 여름에 陽이 위에 있고 陰이 아래에 있어 炎熱이 맹렬한 불처럼 타올라 火가 왕성하여 만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變化라는 것은 「天元紀大論」에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化라 하고 만물이 극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變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만물의 生長이 여기에서 지극하게 되는 것인저, 鑽木作火라는 것은 陽貨가 이르기를 “鑽燧改火”라 하였다. 注에서 燧는 불을 取하는 나무이다. 改火는 봄에는 榆柳之火를 取하고 여름에는 棗杏之火를 取하고 夏季에는 桑柘之火를 取하고 가을에는 柞櫨之火를 取하고 겨울에는 槐檀之火를 取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火는 木에서 생겨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木生火의 유래이다. 然火無正體라는 것은 東井이 말하기를 “오행에서 金木水土는 正體가 있되 火는 뉘나뉘를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椿도 또한 “金과 金을 합하면 火가 있게 되고 石과 石을 합하면 火가 나오고 水에는 龍雷之火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火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火無正體라고 한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火의 正體는 본래 木에서 생긴다. 出以應物이라

는 것은 火가 나와 홀로 탈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물에 應하여 타다가 물건이 다 타면 火가 다시 없어져 들어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韻會』에서 “理는 正也라” 하였으니 여름에 만물이 生長을 드러내는 것은 正理임을 말한 것이다.

金은 主於西하고 應秋라 金之爲言은 禁也니 陰氣始禁止萬物而擎斂이라 披沙揀金은 土所生也오 生於土而別於土하니 乃自然之形也니라

[口義] 가을의 서늘한 陰氣가 처음 찾아오면 벌레들은 모두 흙속으로 숨으려고 하고 초목은 모두 가지와 잎이 뻗뻗해지고 누래져서 떨어지려고 한다. 陰氣가 깊어지면 크고 작은 열매가 모두 익고 수렴되니 이것을 일러 만물을 禁止시켜 수렴한다고 이르는 것이다. 『玉篇』에서 “擎는 子와 由의 반절음이니 聚也며 束也라”고 하였고 『韻會』에서 “斂은 力과 用의 반절음이니 收也며 聚也라”고 하였다. 『玉篇』에서 “披는 敷와 羈의 반절음이니 開也라”고 하였다. 이는 土沙를 헤쳐 金을 채취하니 金은 본래 土에서 생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土生金의 유래이다. 金은 원래 土에서 생기지만 土와는 구별되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형태인 것이다. 『增韻』에서 “形은 體也라” 했으니 가을에는 만물이 그 모습을 모아서 수렴함을 말한 것이다.

水는 主於北하고 應冬이라 水之爲言은 潤也니 陰氣濡潤하야 任養萬物也니라 水西而東은 金所生也오 水流曲折하야 順而下達하니 乃自然之性也니라

[口義] 겨울의 찬 陰氣는 濡潤하여 만물을 任養한다. 任은 妊의 뜻이니 蠶蟲과 草木이 모두 흙속에서 懷妊하여 養育함을 완성하는 것이다. 水西而東이라는 것은 西는 金이고 北은 水니 相生하고 北水는 母이고 東木은 子니 이 또한 子母相生이니 水가 서쪽에서 북쪽으로 갔다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옮겨 木을 養育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上文에서 萬物을 任養한다고 말한 것이다. 水는 본래 金이 生하니 이것이 金生水의 유래이다. 물이 흘러 굽이굽이 돌아

꺼져 들어가 밤낮 쉬지 않고 낮은 곳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通達한다. 洪範에 이르기를 “水曰潤下”라 하고 또 “達於河”라 하였다. 注에서 “물을 따라 물에 들어가는 것을 達이라고 한다”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질이다.

『韻會』에서 “사람은 五方之風과 山川之氣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性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니 이제 겨울은 만물이 坤에서 濡潤하게 있다가 生發之天性을 재촉하고자 함을 말하는 것이다.

土는 主於中央하고 兼位西南하며 應於長夏라 土之爲言은 吐也니 含吐萬物하야 將生者는 出하고 將死者는 歸하니 爲萬物家라 故로 長於夏末은 火所生也오 土或勝水나 水乃反一하니 自然之義也니라

【口義】 중앙은 동서남북의 중앙이다. 土는 中央을 主하여 비록 正位가 없으나 四隅를 겸하되 西南坤位에 실제 자리를 붙여 長夏에 응하니 장하는 土用이다. 『六節藏象論』注에서 이르기를 “長夏는 6월이다. 土는 火에서 생겨 길게 여름 속에 있고 길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왕성하기 때문에 長夏라고 한다”고 하였다. 내가 살피건대 土를 四維에 배합하는 것을 보면 깊은 뜻이 있다. 어찌서인가. 가령 四方이 相生하면 土가 相克함이 있고 相克하면 土가 相生함이 있다. 이와 같지 않다면 어찌 生長化收藏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釋名』에 이르기를 “土는 吐也니 만물이 모두 土에서 吐出되어 生榮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흙속에 있는 것을 숨이라고 하고 이미 싹이 나온 것을 吐라고 말한다. 봄-여름에 초목이 生하려고 하는 것은 흙에서 나와 生長하고 가을-가을에 초목이 죽으려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 收藏하니 실질적으로 土가 만물의 집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봄-여름은 陽이고 가을-가을은 陰이기 때문에 土는 여름 끝에서 長하여 음양을 나눈다. 土는 본래 火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火生土의 유래이다. 土或勝水라는 것은 土克水하는 것이고 水乃反一은 혹자가 말하기를 “一이라는 글자는 아마 土라고 할 수 있으니 板本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

었다. 水乃反土라는 것은 土克水하면 水의 자식 木이 와서 도리어 土를 克하는 것이다. 내가 이르기를 或이라는 글자를 눈여겨보아야 하니 土가 或 克水하지만 水가 元수를 두려워하여 一元水로 돌아감을 말한 것이다. 만물은 모두 水에서 나와 水로 돌아가니 水에 깊은 이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뜻이다. 『釋名』에 이르기를 “義는 宜也라”하였으니 사물을 制裁하여 마땅함에 합치되게 하는 것이다.

○ 이상의 5節은 오행 상생의 뜻을 말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玄璞은 자신의 스승인 東井의 설뿐만 아니라 『內經』, 왕빙주, 『周易』, 『韻會』, 『玉篇』, 『釋名』 등의 字書를 인용하며 유온서의 『運氣論奧』 원문에 대해서 상세한 주석을 가하고 있다. 玄璞의 口義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후에 나온 『運氣論奧疏鈔』, 『運氣論奧句解』, 『鰲頭運氣論』, 『運氣論奧諺解』의 先河가 되기 때문이다.

2. 運氣論奧得助圖

得助圖라고 이름 지은 유래에 대해 玄璞은 1635년에 쓴 跋文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⁶⁾

무진년(1628년)에 二十通을 지어 세상에 내어 놓았으나 잘못된 곳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옳은 것만 바로 취하여 이 한권의 책으로 요약하였다. 이전에 운기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수와 수레 만드는 장인의 規矩에 비교하여 論하였으니 내가 도움을 얻고자(得其助) 한 것이니 이 때문에 得助圖라고 이름하였다.(戊辰年에 撰二十通하야 雖翫於世로대 而誤益夥故로 去其非하고 直取其是하야 以括此一套矣라 以往에 論氣運 便療病者를 以比梓匠輪輿之規矩니 欲令某得其助니 仍名謂之得助圖也라)

이 책의 저자 玄璞과 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俊甫 光勝은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 玄璞. 運氣論奧得助圖. 古書.

洛에 재주가 뛰어난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玄璞이고 字는 可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특출하였고 부지런히 배우기를 좋아하여 대가들이 밝힌 깊은 이치를 궁리하고 연마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하물며 의학에 있어서라. 이에 一溪(曲直瀬道三의 字)의 학문을 참작하고 東井의 오랜 경험을 통한 치료와 완전한 효과를 깊이 연구하여 외감과 내상병을 기사회생시켰다.(洛有一秀才하니 諱玄璞이오 字可敬이라 生而岐嶷하고 孜孜好學하야 凡措大家蘊奧하야 無不括磨하니 矧於醫乎아 爰酌一溪流하고 深窺東井底三折之治와 十全之效하야 外感內傷을 起死面生이라)

이전에 薩의 人事中에 肖何 玄昌스님이 계셨는데 理學에 정통하였다. 그리하여 京華에 와서 머무를 때 공이 나아가서 (배위) 운기의 奧旨를 깊이 연구하였다. 나도 참선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한두명을 데리고 講席에 참여하여 실마리를 공부하였다. 나는 성품이 노둔하고 어두워 깊고 은미한 이치를 다 얻지 못했으나 공만이 오직 전체를 암송하고 내용을 깨닫고 분석하여 스승이 말로 전해주는 것을 빠르게 터득하였다. 돌아와서 이곳에서 거둬 자리를 만들어 깊은 이치를 강론할 때 여러 학생들이 모여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 것처럼 많았다. 살피건대 유은서의 서문에 일찍이 註釋이 없어 독자들이 유감스럽게 여겼는데 공께서 古人의 쓴 것을 모아 빠지고 간략한 것을 보충하고 得助圖 1편을 덧붙여 후세의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니 어찌 보탬이 적다고 하겠는가(嚮是薩之人事에 有肖何 玄昌 阿師者 하니 頗精理學이라 以故로 旅泊於京華할새 公就之하야 窮研運氣奧旨라 余亦禪餘에 攜一兩輩하야 陪講筵하야 搜端緒라 余性魯暗하야 不悉玄微나 公獨通念曉析하야 得師口捷이라 已還에 講論奧效 重席할새 諸生販之如市라 按컨대 劉溫舒序에 嘗無註釋하야 讀者爲憾이러니 公採撫古人抄하야 補其闕略하고 附著得助圖一篇하야 以示來蒙하니 豈云小補乎아)

위의 내용을 보면 玄璞은 玄昌에게 배운 이후 다시 사람들에게 『운기론오』를 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으로 口義를 짓고 口義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림과 해설을 첨부하여 得助圖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運氣論奧得助圖』의 目錄은 다음과 같다.

五運六氣樞要之圖	宿禽所屬宮分之圖附
二十八宿吉凶詩斷	納音筭術
隔八生子之圖	律呂隔八相生之圖
日遲月速行之圖	閏月定時成歲之圖
二十八宿度數之圖	銅壺晝夜百刻之圖
日刻回輪之圖	辨陰陽進退之圖附
辨干德符之圖	辨天符歲會之圖
南北政之圖	辨氣運加臨紀之圖
歲中主客運之圖	辨手足六合之圖
辨勝復變之圖	辨中氣之圖
六十年客氣傍通之圖附	引經報使
五臟五味補瀉	六氣主病治法例
五運主方治例	五運六氣平治湯
臟腑虛實標本用藥式	

『運氣論奧得助圖』의 각 章의 目錄 위에는 그 내용이 『運氣論奧』의 몇째 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두 밝혀주고 있고 끝부분에 있는 引經報使부터 臟腑虛實標本用藥式까지는 潔古 『珍珠囊』, 이시진의 『本草綱目』, 徐春甫의 『古今醫統』에서 보충한 것이다. 五運主方治例와 五運六氣平治湯은 출전을 밝히지 않았는데 陳無擇의 『三因方』에 있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辨中氣之圖의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운기론오』의 論六十年容氣 第二十七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먼저 『운기론오』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又有中見之氣從之하니 經所謂 少陽之上에 火氣治之하고 中見厥陰이 是也라 蓋陽極則陰生하고 陰極則陽生하니 斯五行相濟之妙用也니라 其中見者는 乃手足經六合藏府相乘之化者가 是也니 在天地間 則氣自應之矣니라

得助圖의 辨中氣之圖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운기론오』의 第二十七에 있는 내용이다.

火燥寒風熱濕은 본이 된다.

本과 標의 중간에서 나타나는 것이 中氣이다.

三陰三陽이 標가 된다.

少陽之上에 火氣治之하니 中見厥陰이라.

火氣는 본이 된다.

手厥陰心包經, 足厥陰肝經이 中氣가 된다.(手足厥陰과 手足少陽은 서로 中氣가 된다.)

少陽이 標가 된다.

手少陽은 三焦에 屬하고 心包에 絡한다. 足少陽은 膽에 屬하고 肝에 絡한다.

厥陰之上에 風氣治之하니 中見少陽이라.

風氣가 본이 된다.

手少陽三焦經과 足少陽膽經이 中氣가 된다.(手足少陽과 手足厥陰은 서로 中氣가 된다.)

厥陰이 標가 된다.

手厥陰은 心包에 屬하고 三焦에 絡한다. 足厥陰은 肝에 屬하고 膽에 絡한다.

이어서 “陽明之上에 燥氣治之하니 中見太陰이라. 太陰之上에 濕氣治之하니 中見陽明이라”와 “太陽之上에 寒氣治之하니 中見少陰이라. 少陰之上에 熱氣治之하니 中見太陽이라”의 내용이 있는데 少陽과 厥陰의 관계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마지막에 “오장 육부는 본이 되니 속에 있다. 本標의 사이에서 絡하고 있는 것이 中氣이다. 12經絡은 標가 되어 밖에 있다”의 내용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中氣를 標氣에 絡하는 經脈으로 본 것으로 中氣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鶴飼石齋의 運氣論句解 및 運氣論圖解

1) 運氣論句解

鶴飼 石齋(1615~1664)는 江戸時代 前期의 儒學

者이다. 諱는 信之, 字는 子直, 號는 石齋·心耕子이다.

江戸 出身으로 那波活所에게서 배웠다. 正保 3年(1646)에 攝津尼崎 藩(兵庫縣)에 초빙되어, 尼崎藩 主人 青山幸利를 모셨고, 萬治 3年(1660年)에 관직을 사직하고 교토로 상경하여, 京都의 油小路에서 개인 서당을 열고 門人을 育成하여, 그의 명성은 山崎闇齋·毛利貞齋로 이어진다.

儒學뿐만 아니라, 歷史에도 精通하여, 31種 673卷에 이르는 著書·校刊本이 알려져 있고, 代表的인 것으로써 『本朝編年小史』 7卷, 『明清圖記』 11卷 등이 있다. 50歲로 별세하여, 圓光寺에 묻혔다. 孟東野⁷⁾·陶淵明⁸⁾ 두 사람의 시호에 의해, 「貞節」로 시호를 내렸다.⁹⁾

運氣論句解는 上·中·下·一·二 4卷으로 되어 있고 1646년 그의 나이 32세 때 완성되었다. 序文과 跋文이 없어 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鶴飼 石齋가 儒學者인 관계로 『운기론오』 중에서 論生成數篇十의 句解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句解] 生成數는 하도의 수이다. 복희씨께서 天下에 왕노릇할 때 龍馬가 그림을 지고 河水에서 나왔다기 때문에 河圖라고 부르니 그 數는 本론 속에 나온다.

天高寥廓에 六氣回旋하야 以成於四時하고 地厚幽深也에 五行生化하야 以成於萬物하니 可謂無窮而莫測也니라

7) 孟郊(751-814年)는 中國·唐代의 詩人. 字는 東野, 諱는 貞曜先生이라고 한다.

8) 陶淵明(365-427年)은 東晉末에서 南朝宋의 文學者이다. 字는 元亮. 이름은 潛, 字가 淵明이다. 死後에 친구들로부터 「靖節先生」이라 시호를 받았다. 또는 自傳的作品 「五柳先生傳」에 의거 「五柳先生」으로도 불린다.

9) 鶴飼石齋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s://ja.wikipedia.org/wiki/%E9%B5%9C%E9%A3%BC%E7%9F%B3%E6%96%8E>.

10) 鶴飼石齋. 運氣論句解. 古書.

[句解] 廣雅에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거리는 2억 1만 6천 7백 8십 1리반이고 땅의 두터움도 하늘의 높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천원기대론」에서 “적막하고 넓은 큰 허공이 변화의 근원을 처음으로 기반을 놓았다”라고 하였다. 張註에서 “寥廓은 텅 비어 끝이 없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聖人立法하야 以推步者는 蓋不能逃其數니

[句解] 성인은 기백이다. 推步에 대한 註는 第二篇에 있다.

觀其立數之因전대 亦皆出乎自然이니라 故로 載於經典은 同而不異하니

[句解] 하도는 自然스러운 數로 萬事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경전에 실려 있는 數가 수없이 변화하나 다름이 있지 않다.

推以達其機와 窮以通其變이 皆不離於數內니라

[句解] 機는 서문의 註에 있다(達은 통한다는 뜻이고 機는 은미 또는 기미의 뜻이다) 천만가지로 변하고 모양을 바꾸는 것이 숫자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數에서 도망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一曰水오 二曰火오 三曰木이오 四曰金이오 五曰土者는 咸有所也니라

[句解] 이것은 生數이다.(무릇 奇數는 天數이고 偶數는 地數이다) 所字아래에 반드시 빠진 글자가 있어야 되니 아마 謂字일 것이다.

水는 北方子之位也오 子者는 陽生之初오 一은 陽數也니 故로 水曰一이니라 火는 南方午之位也오 午者는 陰生之初오 二는 陰數也니 故로 火曰二니라

[句解] 장개빈이 말하기를 “오행은 각각 形質을 갖추에 오직 水火가 가장 가볍고 맑다. 造化의 시초

가 되기 때문에 天은 一奇로 水를 生하고 地는 二偶로 火를 生한다”고 하였다.

木居東方하니 東은 陽也라 三者는 奇之數로 亦陽也니 故로 曰三이니라

[句解] 또 말하기를 “음양이 이미 합쳐지면 반드시 發生을 하고 水氣가 木을 生하므로 木이 다음에 자리한다”고 하였다.(뒤에 보인다)

金居西方하니 西는 陰也라 四者는 偶之數로 亦陰也니 故로 金曰四니라

[句解] 또 말하기를 “이미 發生을 했다면 반드시 수렴하여 죽이는 것이 있고 燥氣가 金을 生하기 때문에 金이 다음에 자리한다”라고 하였다(뒤에 보인다)

土應西南長夏하고 五者는 奇之數로 亦陽也니 故로 土曰五니라

[句解] 또 말하기를 “戴廷槐¹¹⁾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땅이 있으면 土가 있는 것이다. 만약 土가 생겨나는 것이 뒤에 있다면 天三의 木과 地四의 金이 장차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이며 또 水火木金은 土에 의뢰하지 않음이 없으니 土가 어찌 뒤에 생겨나는 것이리오? 土는 中宮에서 왕성하고 四維를 통솔한다. 五는 숫자의 중간이 되기 때문에 土를 五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由是論之전대 則數는 以陰陽而配者也라

[句解] 위와 같다.

若考其深義면 則水生於一이니 天地未分과 萬物未成之初에 莫不先見於水니라(『유경도익』에 “莫不先由於水”라 하였으니 아주 옳다.) 故로 靈樞經에 曰 太

11) 戴廷槐 : 명나라 長泰人 隆慶中 貢生 『學易學隅』라는 책을 지었다.

一者是 水尊號也니 先地之母오 後萬物之源이라하니
라 以今驗之컨대 則草木子實未就와 人蟲胎卵 胎胚는
皆水也니 豈不以水爲一이리오

[句解] 天地未分 萬物未成이라는 것은 이른바 太極이다. 水火가 이미 생겨났다는 것은 이른바 태극이 움직여 陽을 생하고 고요하게 되어 陰을 생하는 것이다. 『靈樞九宮八風篇』에서 太一이라 하였다. 張註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太一은 북극성이다. 『西志』에서 ‘中宮의 天極星에서 밝은 하나의 별이 太一이 항상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太’는 至尊에 대한 호칭이고 ‘一’은 모든 數의 시작으로 天元의 主宰가 되기 때문에 太一이라 한다 하였으니 북극성이다”(馬註에서 “太一은 歲神이다”라고 하였다) 水는 天地보다 먼저 있는 것이므로 地母가 되고 萬物之源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천금방』에서 “임신 1개월을 胎胚라고 한다”라고 하였다.(『莊子·知北遊』에서 “만물은 모양을 가지고 생겨난다. 따라서 九竅가 있는 것은 胎에서 생겨나고 八竅가 있는 것은 알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草木에 대해 내가 말한다. 胎生하는 것은 眼胞가 위로부터 내려와 눈을 감고 卵生하는 것은 眼胞가 아래로부터 올라가 눈을 감고 濕生하는 것은 눈에 胞가 없어 항상 눈을 감지 않는다. 따라서 잠을 자지 않는다. 化生하는 것은 눈에 구멍이 없다. 오직 黑點이 있을 뿐이고 또 아주 작다.)

及其水之聚而形質(化)하야 (『運氣易覽』에 化字가 없으니 반드시 빠진 글자이다 筆者注: 원본에 없으나 石齋는 化字를 추가 하였다.) 莫不備하니 陰陽之氣在中而後成이라 故로 物之小而味苦者는 火之兆也니라 物熟則甘하니 土之味也오 甘極則反淡하니 淡은 本也라 然이나 人稟父母陰陽生成之化故로 先生二腎하니 左腎屬水하고 右腎屬火라 火曰命門이니 則火之因水而後見 故로 火曰次二니라

[句解] 만물은 水에 의해 생겨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음양의 기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形質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부모에게서

생명을 품부 받을 때 먼저 二腎이 생겨나니 一은 水이고 一은 火이다. 따라서 水다음에 자리 하는 것을 火라고 한다. 「천원기대론」에서 “水火는 음양의 징조이다”라고 하였다.(注에서 “徵은 드러나는 것이고 兆는 먼저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蓋草木子實이 大小雖異나 其皆有兩以相合者는 與人腎同이니 亦陰陽之兆라 是以로 萬物은 非陰陽合體면 則不能生化也니라

[句解] 이 또한 陰陽和合에 대해서 다시 論한 것이다.

既陰陽合體 (則)然後에 有春生而秋成하니 故次三曰木이오 次四曰金이니라

[句解] 장개빈이 말한 것은 앞에 있다. 「天元紀大論」에서 “金木은 生成의 終始가 된다”라고 하였다.(『運氣易覽』에 則字가 없으니 옳다. 筆者注: 원본은 既陰陽合體 則然後로 되어 있으나 石齋는 則이 없는 것이 옳다하여 삭제하였다.)

蓋水有所屬과 火有所藏과 木有所發과 金有所別은 莫不皆因土而後成(五)也니 故로 次五曰土니라

[句解] 水有所屬은 水가 만물을 생하는 어머니가 됨을 말한 것이다(혹자가 말하기를 “이른바 물이 굽이굽이 흘러 아래로 순조롭게 내려가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火有所藏은 陽이 陰속에 간직되어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혹자가 말하기를 “이른바 불이 나와 물건에 응하기를 다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木有所發은 발생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金有所別은 수렴하여 죽이는 것을 말한 것이다. 金이라는 것은 자르고 억제하며 裁制하고 배는 물건이기 때문에 ‘別’이라고 하였다. 成五의 五는 연문인 듯하다.(혹자는 ‘土數五也’라고 해야 한다 하였다. 이렇다면 또한 빠진 것이 있는 것이다. 筆者注: 石齋는 五를 삭제하였다.)

木居於東하고 金居於西하고 火居於南하고 水居於北하고 土居中央而寄位四維하야 應令四季하고 在人四肢니라

[句解] 四維는 4개의 間方이다. 四季는 辰戌丑未의 달이다.

故로 金 木 水 火가 皆待土而後成하니 兼其土數五以成之면 則水六 火七 木八 金九오

[句解] 1, 2, 3, 4, 5는 생수로 시작이고 6, 7, 8, 9, 10은 성수로 마치는 것이다. 1, 2, 3, 4에 각각 5를 곱해 완성하면 1은 6이 되고(天一이生水하고 地六이 완성한다) 2는 7이 되고(地二는生火하고 天七이 완성한다) 3은 8이 되고(天三이生木하고 地八이 완성한다) 4는 9가 된다.(地四가生金하고 天九가 완성한다)

土는 常以五之生數오 不可至十者는 土不待十以成하니

[句解] 戴廷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土를 5와 10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5는 전체 수의 중간이고 10은 성수의 끝이 되기 때문이다. 中은 土가 치우치지 않고 四方을 모두 통솔함을 말한 것이고 極은 만물이 돌아가 묶고 萬有를 싸서 간직함을 말한 것이니 모두 뒤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是生成之數를 皆五以合之면 則大衍之數가

[句解] 算法에서 1, 2, 3, 4를 두고 각각 5를 곱하면 $1 \times 5 = 5$, $2 \times 5 = 10$, $3 \times 5 = 15$, $4 \times 5 = 20$ 이 되어 합하면 50이 된다. 이것이 大衍之數이다. 『韻會』의 易大衍註에서 “천지의 수를 넓히는(演) 것이니 演은 衍과 같으니 數衍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易學啓蒙』에서 말하였다. “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이니 天數가 다섯이고 地數가 다섯이다. 다섯 자리가 相得하며 각각 相合함이 있으니 天數의 合이 25이고 地數의 合이 30이

다. 무릇 천지의 數의 合이 55니 이것이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하도에서 10을 비우면 낙서의 45수가 되고 5를 비우면 大衍數 50이 된다. 5와 10은 낙서의 중형 15수이다. 5×10 을 하고 10×5 를 하면 또 모두 대연지수가 된다. 낙서의 5가 또 5를 함축하여 10이 되어 (밖의 40수와) 통합하여 대연지수가 되고 5와 10을 더하면 15가 되어 (밖의 40수와) 통합하여 하도의 수가 된다)

由是以立하니 則萬物이 豈能逃其數哉리오

[句解] 생수, 성수는 數의 근본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數를 세우면 천지만물이 모두 그 속에 있게 된다.

三陰三陽은 正化者는 從本하니 生數오 對化者는 從標하니 成數며

[句解] 六氣가 12支를 관장하는 것에 正化 對化가 있다. 가령 艮은 巳亥를 맡으니 厥陰木을 말한다. 木은 亥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亥가 正化가 되고 巳가 對化가 되는 類가 이것이다. 상세한 것은 第16篇에 있다(『유경도익』에서 이르기를 “한곳에서 正은 化合의 實을 관장하고 對는 化合의 虛를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五運之紀는 則太過者는 其數成하고 不及者는 其數生하니 各取其數之生成多少하야 以占政 令 氣化勝復之述作은 蓋明諸用也니라

[句解] 馬注에서 “太過이하로부터 數生까지는 「육원정기대론」의 말이다.”라고 하였다.

張註에서 “成은 氣가 왕성한 것이고 生은 氣가 미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또 말하기를 “이를 살펴 보건대 數에 생수 성수가 있는 것은 아마 氣에 初氣·中氣가 있는 뜻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多는 성수이고 少는 생수이다. 占은 점진다는 뜻이다. 政令의 태과 불급, 氣化의 盛衰, 勝復의 微甚은 각각 모두

數의 生成多少를 취해서 그 述作을 점칠 수 있다. 述作은 功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用은 體가 行해지는 것이다(古注를 살펴보면 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太羽少羽는 水運의 태과 불급이고, 大角小角은 木運의 태과 불급이다. 이러한 종류는 대개 五運을 五音으로 말한 것이다. 勝復은 司天在泉의 化습이다. 勝이 있으면 復이 있다. 『지진요대론』에 나온다. 상세한 것은 제 25論에 있다.

鶴飼 石齋 주석의 특징은 첫째 글자의 추가와 삭제에 정밀하였고 둘째 유학자답게 『주역』 『역학계몽』 『莊子』 『廣雅』 등의 서적을 널리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內經』 『難經』 장개빈의 『類經圖翼』 『馬玄臺』注 등 의서도 두루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로 주석이 비교적 길지 않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2) 運氣論圖解

이 책은 그림과 설명으로써 『운기론오』의 내용을 보충설명하고 있다.¹²⁾ 『운기론오』에 있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모두 신고 있고 자신이 그린 그림도 많이 추가하고 있다. 『운기론오』에 있는 그림을 모두 다시 그렸으며 간혹 다른 그림으로 대체한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第二十 南北政圖이다. 『운기론오』에서는 甲己가 南政이 되고 나머지가 北政이 되는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類經圖翼』을 인용하여 南政年脈不應圖와 北政年脈不應圖를 신고 있다. 추가한 그림과 설명으로는 二十八宿星禽所屬支宮圖와 年禽起例, 月禽起例, 日禽起例, 時禽起例 등을 위시하여 納音算法, 律呂相生卦氣圖, 明魄朔望圖, 閏月成歲之圖, 七政之圖, 五辰之圖, 日月會中星圖, 十二次會中星圖, 日月冬夏九道之圖, 二十四向八刻二十分圖, 每日氣數百刻六千分圖, 銅壺刻漏圖, 甲子歲부터 乙丑歲 丙寅歲 丁卯歲까지 六氣終始日刻圖, 六十年歲氣三合會同圖, 八卦八位, 河圖, 洛書, 各年五運交司時日圖, 中氣之圖, 藏府應天本標中氣圖 등이 있다. 이 책은 運氣論句解와 별도의 책은 아니고 運氣論句解의 附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鶴飼石齋. 運氣論圖解. 古書.

4. 松下見林의 運氣論奧疏鈔와 論奧辨證

1) 運氣論奧疏鈔

松下見林(1637~1703)은 寬永 14년(1637년) 1월 1일에 大坂에서 의사인 松下 見朴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慶·慶攝·秀明이고, 字는 諸生이며, 통칭 見林이라고 하였고, 西峰山人이라고 불렸다. 본래의 성은 橋刈 이다. 처음 아버지에게서 문장 읽는 것을 배우고 慶安 2년(1649) 교토에 나와 儒醫인 古林 見宜의 문하로 들어가서 의학을 배웠다. 見宜의 사후인, 21세의 나이에 堀川에서 개업함과 동시에 의학·의서·國典·역사를 연구하고 강설했다. 아버지의 사후에 의사로서 업을 삼고 博覽強記하고 한학에 정통하여 일본의 고전을 섭렵하였다.

元祿 3년(1690), 讚岐高松의 번주인 松平 頼常(1652~1704, 光圀의 장남, 徳川光圀 도쿠가와 미쓰쿠니(1628년-1701년))의 부름을 받고, 京都에 소개하고 있는 황릉의 조사저술 활동의 원조를 받았다.

장서가 많고, 매년 肥前(옛 지방 이름, 지금의 佐賀縣과 長崎縣의 일부)의 나가사키에 사람을 보내어 해외로부터의 서적을 구입하여 빌려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요청에 응했다.

元祿 16年 12月 7日(1703)에 67세에 졸했다. 명치 30년(1897年) 從四位를 추서했다.

『三代實録』을 校訂出版하였다. 저술로 『異稱日本傳』¹³⁾, 『公事根源集釋』, 『習醫規格』, 『運氣論奧疏鈔』, 『見宜翁醫按』, 『難經抄』등이 있다.¹⁴⁾

『運氣論奧疏鈔』는 그의 나이 29세 때 1665년(寬文 5年)에 쓴 책이다. 서문에서 그는 운기의 유래와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⁵⁾

13) 에도시기의 3권의 역사서이다. 교토의 유학자인 松下見林가 서술하여 元祿6年(1693)에 간행하였다. 중국, 조선의 역사에서 일본관계의 기사를 골라내어 편집한 것이다.

14) 松下見林. 美術人名辭典の解説, デジタル大辞泉の解説,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の解説,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の解説, 大辞林 第三版の解説, 367日誕生日大事典の解説,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の解説 [cited on August 23, 2017]; Available from: <https://kotobank.jp/word/%E6%9D%BE%E4%B8%8B%E8%A6%8B%E6%9E%97-16553>.

15)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 卷一. 古書.

五天의 雲氣를 관찰함으로써 오운육기의 설이 있게 되었다. 대개 천지의 사이는 비록 풍토가 다르고 氣化가 운행하는 것이 천만가지로 변화하지만 이치로써 가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태과 불급 평기가 그 기후를 달리하고 주기 객기의 작용과 변화가 그 구역을 나눔에 사람과 만물이 천지사이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운을 감축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和平한 경우도 있고 재앙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크게 신령스러운 사람이 질문을 하여 조화의 깊은 이치를 발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여 백성의 질병을 구원하고자 하시니 이것이 『소문』에서 운기를 논한 이유이다.(自望五天雲氣以來로 有五運六氣之說矣라 蓋天地之間은 雖風土不一하고 氣化之行也도 千變萬化로대 而有數之可數者는 太過不及平氣가 不同其候하고 主客臨御之化가 分其部主에 而人物之命於兩間者는 無不感其氣라 故爲和平하며 爲災患이라 是以로 大神靈問하야 發造化之蘊하야 將以觀於其化而救民之疾하시니 此素問所以論運氣也라.)

또 그는 운기의 중요성과 『운기론오』에 주석을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운기의 학설을 읽음에 미친데 일찍이 다음과 같이 (스승인 見宜堂先生께서) 말씀하셨다. “오운육기는 하나의 오행이다. 대저 사람의 천만가지로 변화하는 병태는 모두 음양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약을 씌울 때의 성쇠를 보고 升降浮沈을 體察하여 補하고 瀉함에 음양오행에 비기지 아니함이 없다. 따라서 天道를 받들어 오행에 순응하여 그것을 變理하고자 한다면 운기는 반드시 폐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운기를 배우는 자들은 송나라 유운서의 『운기론오』만을 언급하고 『내경』의 운기 제편을 아는 자는 드물다.” 드디어 『운기론오』를 취해 본경을 증명할 때 여러 책들을 인용하고 거칠게 나의 의견을 더해 『運氣論與疏鈔』를 만들었다.(及讀運氣之說한대 嘗謂五運六氣는 一五行也라 夫人千變萬化之病態는 皆不出乎陰陽五行하니 用藥에 視時盛衰하고 體升降浮沈하야 或補或瀉에 無不擬之於陰陽五行이라 故欲奉天道 順五行하야 以變理之면 則運氣는 必不可

廢라 然이나 世之學運氣者는 談及宋劉溫舒論奧하고 知內經運氣諸篇者는 鮮矣라하니라 遂取論奧하야 證之本經할새 引援諸書하고 粗加以己意하야 作疏鈔라.)

『運氣論與疏鈔』는 10冊으로 되어 있고 송나라 때 劉溫舒가 지은 『素門入式運氣論奧』를 저본으로 삼아 『黃帝內經』을 위시한 醫書로부터 諸子百家, 史書, 字書, 韻書, 四書, 五經 등 수많은 서적은 인용하여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다. 그의 주석이 얼마나 방대하고 상세한가를 책의 첫 부분인 “素門入式運氣論奧序”라는 9글자에 대한 주석을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 『文獻通考』 卷 222 「經籍考」 醫家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運氣論奧』는 3卷이다.” 晁氏가 말하였다. “宋나라의 劉溫舒가 지었다. 溫舒는 『素問』의 運氣가 최고의 治病之要가 되지만 問答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文辭가 古奧하여 독자들이 알기 어렵다고 여겨 30論 27圖를 만들어 조정에 올렸다.”

• 『宋史新編』 52권 藝文 醫書類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유운서 『內經素問論奧』 4卷”

내가 살펴보건대 焦竑이 『國史經籍志』에서 또 말하기를 “유운서는 『素問論奧』 4卷을 지었다.”고 하였다. 지금 이 책은 上, 中, 下 3卷으로 되어 있다. 『문헌통고』는 송나라 馬端臨이 지었다. 그 속에서 이 책의 목록이 3卷이라고 기재하였으니 송나라 때의 卷數로 지금과 같다. 그러나 『宋史經籍志』 등서에서 4卷이라고 한 것은 아마 卷末의 「五行勝復論」을 제4권이라고 삼은 것인가. 마땅히 「五行勝復論」의 첫머리에 있는 注를 참고하여 고찰할 것이다.

○ 素問

• 『황제내경』 18권 중에 『소문』 9권 81편이 있는데 그 名義에 대해 여러 說이 있으므로 지금 다음에서 상세히 기록한다.

• 송나라 高保衡, 林億은 新校正에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王氷은 『소문』이라고 명명한 뜻과 『소문』

의 명칭이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隋書經籍志』에 처음으로 『소문』의 書名이 실려 있다. 『갑을경』 序의 晋나라 皇甫謐의 문장 속에 이미 “『소문』은 병을 논한 것이 정밀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였다. 王叔和는 西晋人으로 『脉經』을 지었는데 (그 속에 있는 문장에 대해) “『소문』, 『針經』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漢나라 張仲景은 『傷寒卒病論』을 지었는데 이르기 “『素問』을 책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素問』의 명칭은 『隋書經籍志』에 기록된 것보다 앞대인 漢代에 보인다. 장중경 이전은 고찰 할 수 있는 글이 없어 알 수가 없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책에 의거해 보면 『소문』의 명칭은 漢代에서 시작되었다. 『素問』이라고 명명한 의미를 全元起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素는 근본이라는 뜻이고 問은 黃帝가 岐伯에게 질문한 것이다. 바야흐로 性情의 근원과 오행의 근본을 陳述했기 때문에 素問이라고 했다.” 전원기가 비록 이렇게 해석했지만 뜻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 살피건대 (筆者注 : 신교정의 주장이다) 『乾鑿度』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형태가 있는 것은 무형에서 생기기 때문에 太易, 太初, 太始, 太素가 있다. 太易은 아직 氣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고, 太初는 氣가 시작된 것이고, 太始는 形이 시작된 것이고, 太素는 質이 시작된 것이다.” 氣形質이 갖추어짐에 질병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따라서 황제가 이곳 太素의 質이 시작된 것을 질문한 것이다. 『소문』의 名義는 혹 여기서 시작 되었을 것이다.

• 明나라 馬仲化는 『素問註證發微』에서 全元起와 新校正의 說은 뜻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 『문헌통고』 222 「經籍考」에서 晁氏は “옛사람이 『素問』이라고 한 것은 흰 비단에 황제의 질문을 적었기 때문에 素書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 張介賓은 『類經』 注에서 “平素에 講問한 것이어서 이를 『素問』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이 책에는 『靈樞』를 인용한 것이 또한 있지만 『素問』이라 한 것은 대개 운기설이 『소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문』만을 홀로 취한 것이다.

○ 入式

• 式은 『설문』에서 法이라고 했다.

• 서문 속에서 “그 사이에서 운기가 가장 補瀉하는데 요점이 되니 비록 황제와 기백·귀유구가 묻고 대답한 곳에 자세히 보이나 여러 篇章에 섞여서 혼란스러워 빨리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유운서가 이 책을 지은 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法에 들어가게 하고자 한 것임으로 入式이라 하였으니 이른바 法이라는 것은 聖法이며 또 治法이다. 상세한 것은 뒤에 갖추어져 있다.

○ 運氣

• 오운육기이다.

• 『의학입문』 卷之首 「운기총론」에서 말하였다. “오운은 金木水火土이고 육기는 風火暑濕燥寒이다. 성인께서 五天의 雲色을 우러러 보아 天干에서는 運을 취하고 地支에서는 氣를 取하니 天干에 十을 배합하면 오운이 되고 地支에 12를 마주 相衝시키면 육기가 된다.”

• 『素問氣交變大論』에서 “운과 기가 서로 相得하면 각각 正道로써 행한다.”고 하였다.

• 『五運行大論』에서 “土는 甲巳를 主하고, 金은 乙庚을 主하고, 水는 丙辛을 主하고, 木은 丁壬을 主하고, 火는 戊癸를 主하며, 子午의 위에는 少陰이 主하고, 丑未의 위에는 太陰이 主하고, 寅申의 위에는 少陽이 主하고, 卯酉의 위에는 陽明이 主하고, 辰戌의 위에는 太陽이 主하고, 巳亥의 위에는 厥陰이 主한다.”고 하였다.

•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운기 두 글자는 서로 서로 작용하니 오행의 기화가 하늘에 있으면 六이 되고 땅에 있으면 五가 되니 1년 사이를 운행하기 때문에 오운육기라고 한다. 六이라는 음수가 하늘에 있고 五라는 양수가 땅에 있는 것은 대개 陰陽이 互根하는 뜻이다.

• 『유경도익』 1卷 「氣數統論」에서 말하였다. “五와 六의 작용에서 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더욱 드러난 증거가 있으니 예를 들어 초봄의 복숭아 꽃잎이 5개인 것은 하늘이 生한 것이고 한겨

울의 눈이 육각형을 이루는 것은 땅이 成한 것이다. 조화의 오묘함이 어찌 우연히 생기는 것이리오.”

• 무릇 오운육기를 확정할 때 10干, 12支를 배합하는 것은 천지개벽의 처음에 五天之氣를 살피서 『太始天元冊』에 기록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素問五運行大論』에 나오며 그 뜻은 『의학강목』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本書의 中卷 五天之氣를 論하는 疏鈔에 있다.

○ 論奧

• 살펴보건대 下卷 論六脉篇에서 “다만 오운육기의 이치는 심오하여 논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유운서가 이 글을 모아 심오한 것을 논하였기 때문에 論奧라고 한 것이다.

• 『書經·周官』의 註에서 “論한다는 것은 강론하여 밝힘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序

• 문장을 짓는 한 종류의 문체이다. 모든 책의 머리에 모두 序가 있다. 이 서문은 유운서가 스스로 지은 서문이다.

• 吳勉學의 『對類文史門』에서 “序는 일을 서술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 『史記集解』의 叙에서 正義에서 “序는 실마리를 풀어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孫炎은 “端緒를 이른다.”고 했다. 공자가 易의 序卦를 짓고 子夏가 詩序를 지었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松下見林은 漢學에 정통한 儒醫로써 수많은 책을 읽어 지식이 淵博하여 醫書뿐만 아니라 經書, 史書, 諸子百家書에 달통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運氣論奧疏鈔』는 注를 인용한 것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완성하여 운기학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서적이다.

2) 論奧辨證

이 책도 寬文五年, 즉 1665년, 그의 나이 29세 때 완성된 책이다. 『論奧辨證』에는 序文과 跋文이

없고, 『운기론오소초』의 序文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또 여러 책들을 인용할 때에 말의 이치는 관통되었으나 疏鈔中에 거칠게 논술하기가 어려운 것과 문장의 뜻을 훈고하는 외에 오히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蒐輯하여 책을 만들어 별도로 덧붙여 참고에 대비하게 하고 이름을 『論奧辨證』이라 하였다. (又引諸書할새 蒐輯辭理貫通이나 而鈔中難粗論述者와 及訓詁文義之外에 猶有不可不知者하여 爲編하여 別附益之하여 以備參考하고 名曰論奧辨證이라.)

『論奧辨證』은 3권으로 되어 있다. 위의 서문을 보면 『운기론오소초』를 지으면서 수집한 내용 중 『운기론오』의 이해를 위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수집한 것이다. 독자들의 참고를 위해 上, 中, 下卷의 目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論奧辨證 卷之上 目錄

五行所主圖	天文總圖及總叙
望前生明之圖	望後生魄之圖
上弦圖	下弦圖
月朔圖	月晦圖
月望圖	明魄朔望圖
七政之圖	山海輿地全圖
經星昏明迭見之圖	諸曆黃道宿度
分野黃道宿度	二十八宿分野之圖
五星	玉衡隨氣指建圖
日月次舍交會之圖	十二辰解
太陽中道之圖	土圭測影之圖
日月冬夏九道之圖	演禽
新增二十八宿吉凶詩斷	

論奧辨證 卷之中 目錄

河圖五行相生之圖	洛書五行相剋之圖
伏羲八卦次序	伏羲六十四卦次序

16) 松下見林. 論誤辨證. 古書.

天圓爲陽地方爲陰	十二律
隔八相生之圖	候氣升降數 附律長
太極元氣圖	同類娶妻隔八生子圖
律孔圖	本朝十二律
二十四氣	七十二候
丞相府漏壺	古制蓮漏圖
今制蓮漏圖	刻漏制度
田漏	虞書日永日短之圖
四時加減晝夜節氣	甲子歲六氣終始日刻圖
乙丑歲六氣終始日刻圖	丙寅歲六氣終始日刻圖
丁卯歲六氣終始日刻圖	六十年歲氣三合會同圖
水下一刻三合會同解	閏月成歲爲章之圖
司天在天左右間氣圖	司天在天圖解
南北政圖	南政年脉不應圖
北政年脉不應圖	南北政說 附陰陽交尺寸反
五運主運圖	五運主運圖說
五運客運圖	五運客運圖說
上中下本標中氣圖	臟腑應天本標中氣圖
標本中氣從化解	
論奧辨證 卷之下 目錄	
九宮八風圖	九宮八風
論潮	湯泉
日蝕圖	月蝕圖
論日月食	地震
運氣說	天地始終消息圖
天地始終說	

목록의 내용을 통해 일본 운기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소문입식운기론오』의 내용 속에는 오운육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天文, 地理, 納音, 曆法, 八卦, 十二律, 十二辰, 二十八宿, 三十六禽, 密日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 중 上卷의 十二辰解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亥枵는 『爾雅·釋天』에서 “현호는 虛宿이다.”라

고 하였다. 郭璞이 注에서 “虛宿는 정북에 있으니 북방은 흑색이다. 枵라는 글자는 耗의 뜻이니 耗 또한 虛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 星紀는 『爾雅·釋天』에서 “성기는 斗牽牛宿이다.”라고 하였다. 郭璞이 注에서 “牽牛斗宿는 日月과 五星이 終始하는 곳이기 때문에 星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析木은 『爾雅·釋天』에서 “석목은 津이라고 한다.”하였다. 析木은 『爾雅·釋天』에서 “漢津(은하수의 나루터)이다.”라고 하였다. 疏에서 孫炎은 “箕斗의 사이에서 水木을 나누어 구별하니 이것을 天漢(은하수)의 나루터이다.”라고 하였다.

劉炫은 “여기서 天漢은 즉 天河(은하수)니 天河는 箕斗 二星의 사이에 있으니 箕는 東方水位에 있고 斗는 北方木位에 있어 水와 木을 나눔에 箕星이 격리를 시키니 은하수를 격리하여 나무와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러 析木의 나무라 부른다. 析水라고 하지 않고 析木이라 한 것은 이 자리가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해 析木이라고 이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筆者注] 箕는 七曜에서 水에 속하고 斗는 木에 속한다. 28宿의 七曜配合는 角亢氐房心尾箕에 木, 金, 土, 日, 月, 火, 水가 배합되고, 斗午女虛危室壁도 木, 金, 土, 日, 月, 火, 水가 배합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 大火는 『爾雅·釋天』에서 “大火는 大辰이라 한다.”하였다. 大火는 『爾雅·釋天』에서 “大火는 心宿니 가운데서 가장 밝기 때문에 때와 절후를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 壽星은 『爾雅·釋天』에서 “수성은 角亢이다.”라고 하였다. 壽星은 『爾雅·釋天』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 角亢에서 시작되어 列宿의 으뜸이 됨으로 壽라 한다.”고 하였다.

○ 鶉尾, 鶉火, 鶉首는 『爾雅·釋天』에서 “柳宿는 鶉火이다.”라고 하였다. 『爾雅·釋天』에서 “鶉은 새이름이고 火는 南方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疏에서

“鶉火는 柳宿가 있는 자리의 명칭이다. 鶉은 붉은 새이고 火는 남쪽의 오행에 속하니 따라서 그 자리를 이름하여 鶉火라 했다.” 『通鑑釋義』에서 말하기를 “鶉火는 별이름이니 그 자리는 巳와 楚의 분야에 있다.”라고 하였다. 『楚辭』注에서 “남방의 七宿를 鶉首, 鶉尾, 鶉火라고 하는 것은 아마 鶉鳥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날개로써 꼬리를 삼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 實沈은 『韻會』에서 “실침은 별이름이다.”라고 하였다.

○ 大梁은 『爾雅·釋天』에서 “대량은 昴宿이다.”라고 하였다. 곽박이 주에서 “昴는 西方의 宿니 별명은 旄頭이다.”라고 하였다.

○ 降婁는 『爾雅·釋天』에서 “강루는 奎婁이다.”라고 하였다. 降婁는 『爾雅·釋天』에서 “奎는 溝瀆(도랑)이 되기 때문에 降이라고 이름 했다.”라고 하였다.

○ 娵觜는 『爾雅·釋天』에서 “주자의 口字 모습은 營室東壁이다.”라고 하였다. 娵觜는 『爾雅·釋天』에서 “營室東壁은 별의 四方이 口字 모양으로 생겨 이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태양이 운행하는 黃道를 12分한 12辰에 붙인 명칭의 유래를 설명한 내용으로 松下見林의 지식이 해박함을 엿볼 수 있다.

5. 鶉頭運氣論

『鶉頭運氣論』에는 序文과 跋文이 없고 眞柳 誠의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저자를 알 수가 없다. 上·中이 一卷이고 下가 一卷으로 되어 현재 2卷本이 전해지고 있다.

下卷의 끝에 寬文十一年 辛亥年 夏 五月에 武村市 兵衛刊行이라 했으니 1671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岡本爲竹도 『運氣論奧諺解』의 凡例에서 『鶉頭運氣論』을 언급하고 있다. 『오두운기론』도 유운서가 지은 『소문입식운기론오』의 해설서이다. 해설

과 주석에 대한 대강을 알아보기 위해 『운기론오』의 論六化 第五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⁷⁾

〔鶉頭〕 六化는 六氣의 化令이니 風·熱·濕·暑·燥·寒을 말한다.

五行이 施形於地하야 爲世日用하고 相生相制하야 爲萬物之宗元이니

〔鶉頭〕 宗元 ① 宗은 主한다는 뜻이며 尊하다는 뜻이다.

推而上之면 則其氣化百度を 何可量也리오 是以로 感之於人則形體具而爲神機之樞하고 達之於天則寒暑運而爲生化之原하나니

〔鶉頭〕 爲神機之樞 ① 『소문·오상정대론』에서 “속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神機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② 『유경』注에서 “사물이 속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神이 주장을 하여 智覺을 하고 運動을 하니 즉 神機가 발동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③ 機는 문의 지도리이다. 또 機關이다.

然이나 行有五而氣有六하니 以分君火相火之化 일새니라

〔鶉頭〕 以分君火相火之化 ① 장개빈이(『천원기대론』注에서) 말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六氣中에서 오행은 각각 하나인데 오직 火만 둘인 것은 어째서 인가.”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천지의 道는 음양일 따름이니 양은 生을 주장하고 음은 殺을 주장한다. 만약 陽氣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하려는 뜻이 끝내 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해야 하며 陽氣는 剛하고 陰氣는 柔하니 이것은 천지음양의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육기를 나눌 때 陰에 속하는 것이 셋이니 濕·燥·寒이고 陽에 속하는 것이 둘이니 風·熱일 뿐이다. 만약 火에 君火·相火의

17) 失名. 鶉頭運氣論. 日本. 武村市 兵衛. 1671.

氣化가 없으면 陰이 陽보다 왕성하여 殺이 生보다 심하게 되리니 이것이 二火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六氣化者는 謂寒, 暑, 燥, 濕, 風, 火也니 乃天之元氣也오 然後에 三陰三陽이 上奉之하니 謂之標니라 標本之論은 具在下文하니라

[鰲頭] 三陰三陽上奉之 ① 「친원기대론」에서 말하였다. 寒·暑·燥·濕·風·火는 天의 음양이니 삼음삼양이 위로 그것을 받는다.

② 『유경』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寒·暑·燥·濕·風·火의 六氣는 天에서 化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음양이 된다.

三陰三陽이 上奉之한다는 것은 厥陰이 風氣를 받들고, 少陰이 火氣를 받들고, 太陰이 土氣를 받드니 이것이 三陰이고 太陽이 寒氣를 받들고, 少陽이 暑氣를 받들고, 陽明이 燥氣를 받드니 이것이 三陽이다.

六氣가 皆有一化는 舉大概也니 尋文考之컨데 則土之化를 曰濕 曰雨라하고 金化를 曰燥 曰清이라 하니 各所以明其性而已니라 木之化는 風이니 主於春이라 春之爲言은 蠢也니 陽氣蠢動故일세라 風所以鼓舞萬物은 爲天號令하니라

[鰲頭] 春之爲言蠢也 ① 『釋名』에서 “春은 꿈틀거린다는 뜻이니 움직여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鼓舞 ① 「계사전」에서 “두드리고 춤을 추어 神을 다한다.”라고 하였다.

君火之化는 熱이니 主春末夏初라 行暄淑之令而不行炎暑하니 應君之德也라 相火之化는 暑니 主於夏라 夏之爲言은 大也니 與午同意오 炎暑乃行하니라니 金之化는 清與燥니 主於秋라 秋之爲言은 摯也니 與金同意오 清涼이 乃行하니라니 白露는 清氣也오 金屬庚辛하고 辛爲丙燭로 帶火之氣故로 燥니라 難經에 曰辛은 商也오 丙之柔라하니 則金燥之化가 可明矣라

久雨霖霖에 西風而晴은 燥之兆也오 西風而雨는 燥濕爭也나 而乃自晴하니라

[鰲頭] 西風而晴 ① 『性理大全』27에서 程子が 말하기를 “장안은 서풍이 불면 비가 오니 끝내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 이치는 동풍이 불거나 북풍이 불면 비가 내리고, 남풍이 불거나 서풍이 불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동풍이 불거나 북풍이 부는 것은 모두 陽에서 속하니(坎卦는 근본이 陽이다) 陽이 先唱하면 陰이 和答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서풍이 불거나 남풍이 부는 것은 陰이니 陰이 先唱하면 陽이 和答하지 않는다. 『시경·鄘風』의 蝮蝮(蝮蝮)의 詩에서 “아침 서쪽에 무지개 서면 아침 내 내 비가 내리네.”라고 하였다. 이것은 陽이 와서 先唱한 것이다.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주역』에서 “구름이 뽁뽁하게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서쪽 교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서쪽으로부터 시작하면 陰이 先唱한 것이다. 따라서 구름이 비록 뽁뽁하나 비가 내리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서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은 아마 山勢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 것이다.

水之化는 寒이니 主於冬이라 冬之爲言은 終也니 嚴凜이 乃行하니라니 土之化는 濕與雨니 主于長夏하니라 長夏는 謂六月也니라 土生於火하야 長在夏中이라가 既長而王하니라

[鰲頭] 土生於火 長在夏中 ① 「육절장상론」 왕빙 주에서 말하였다. “長夏는 六月이다. 土는 火에서 생겨 오랫동안 여름 속에 있다가 자라게 되면 왕성해지기 때문에 長夏라고 한다.”

土潤溽暑는 濕化行也니라

[鰲頭] 溽暑 ① 溽은 如와 屬의 반절음이니 濕熱이다. 三體詩(宋末에 周弼이 지음)에 이르기를 “남쪽 지방의 溽暑는 술에 취한 것과 같게 한다.”라고 하였다.

蓋濕則土生하고 乾則土死하나니 泉出地中하니 濕化信矣로다 經에 曰地氣上爲雲이오 天氣下爲雨니 雨出地氣하고 雲出天氣라하니 則土雨之化를 見矣로다

[鰲頭] 經曰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① 『음양응상대론』의 문장이다.

② 『유경』 주에서 말하였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땅이 하늘과 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地氣가 올라가면 구름이 된다하고 또 구름이 天氣를 낸다고 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하늘이 땅과 사귀는 것이다. 따라서 天氣가 내려오면 비가 된다 하고 또 비가 地氣를 낸다고 했다.”

③ 『知要』에서 말하기를 “출은 通의 뜻이니 비는 내려 地氣와 通하고 구름은 끼어 天氣와 通한다.”고 하였다.

④ 『合類』에서 말하였다. “사람에게 비유해 보겠다. 飮이 胃에 들어감에 精氣를 흘려넘치게 하여 위로 脾로 보내고 脾氣는 精을 흘려 위로 肺로 보낸다. 이러면 上焦는 開發하여 안개와 이슬같이 되니 이것이 地氣가 올라가 구름이 되는 것이다. 肺는 내려 보내는 政令을 行하면 水道를 소통시키고 고르게 하여 아래로 방광으로 보내고 水精이 사방으로 퍼지니 이것이 天氣가 내려와 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同爲一歲之令하야 巡還而治之也니 夫四時寒暄之序에 加以六氣司化之令하면 則歲歲各異하나니라 凡春溫, 夏熱, 秋涼, 冬寒은 皆天地之正氣也로대 其客이 行于主位則自有逆 順 淫 勝之異하야 由是로 氣候가 不一하니 豈可一定而論之리오

[鰲頭] 逆 順 淫 勝 ① 『육미지대론』에서 “서로 상응하면 順이 되고 막히면 逆이 된다.”고 하였다.

② 왕빙주에서 “때에 합당하면 應이 되고 때를 어기면 否가 된다.”고 하였다.

③ 『유경』 주에서 “淫은 邪氣가 왕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④ 『지진요대론』의 왕빙주에서 “淫은 자기가 이

기지 못하는 것에 行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陰陽四時之氣候는 則始于仲月하야 而盛于季月하니 故로 經에 曰差三十度而有趣라하고

[鰲頭] 故經 ① 『육원정기대론』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황제가 말하기를 “差에 숫자가 있습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後에 모두 30도와 나머지 숫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빙주에서 “日數를 말한 것이다. 後는 四時의 後를 말한다. 差는 30日과 87각 半이니 氣가 아직 떠나지 않고 아주 왕성한 것이다. 度는 日이다. 四時後의 政令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교정에서 이르기를 “살피보건대 注에서 87각 半이라 한 것은 마땅히 43각과 또 40分刻의 30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개빈주에서 말하기를 “後라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이다. 度는 日이다. 30度有奇는 一月의 숫자이다. 奇는 43각 7分半이다. 대개 氣에는 先至·後至의 차이가 있지만 30度에 불과할 따름이니 즉 氣盈朔虛와 절기의 순서 윤달을 두는 방법 같은 것이다. 일찍 이르는 것은 15일有奇를 먼저 오고 늦게 오는 것은 15일有奇를 늦게 와서 혹 먼저 오고 혹 늦게 오는 것이 모두 1개월하고 有奇의 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又言氣令盛衰之用은 其在四維하니 故로 陽之動은 始于溫而盛于暑하고 陰之動은 始于清而盛于寒하야 春, 夏, 秋, 冬이 各有差其分者라하니 此之謂也니라 四維者는 辰, 戌, 丑, 未 四季月也니 蓋春氣는 始于二月하야 盛溫于三月하고 夏氣는 始于五月하야 盛暑于六月하고 秋氣는 始于八月하야 盛涼于九月하고 冬氣는 始于十一月하야 盛寒于十二月하니 以此見之 則氣差가 明矣니라 然이나 五月夏至에 陰氣生而反大熱하고 十一月冬至에 陽氣生而反大寒者는 蓋氣自下生則推而上之也니라 故로 陰生則陽上而愈熱하고 陽生則陰上而愈寒하나니 以今驗之컨대 夏井이 淸涼하고 冬井이 溫和를 則可知也니 是所謂歲之常矣니라

【鰲頭】夏井 清涼 冬井 溫和 則可知也 ① 살펴보면 대 口義에서 圈外에 대해서 問難한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니 족히 변별할 것도 없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두운기론』의 내용은 『소문입식운기론오』를 읽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주석과 해설을 加하지 않고 있다. 다른 주석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가장 疏略하다.

6. 岡本爲竹의 『運氣論奧診解』와 『年中運氣指南』

1) 『運氣論奧診解』

먼저 岡本爲竹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岡本 一抱는 承應 3年(1654年)에 태어나 享保 元年(1716年) 5月20日까지 생존한 江戸時代中期의 醫師이다. 通稱은 爲竹이고, 別號는 一得齋, 守一翁, 攝生堂, 一抱子이다. 承應 3年에 越前國 福井에 있는 京都에서 杉森信義(受慶)의 三男으로써 출생했다.(生年, 出生地는 異說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貞享 3年(1686)에 태어났다고 되어있다.) 10歲 때에 형인 近松 門左衛門에게서 醫學을 배웠다. 寬文9年(1669年), 16歲 때에 당시에 매우 유명한 大和國 宇陀松山藩主人 織田長頼의 侍醫였던 平井要安의 養子가 되어 本姓은 杉森이지만, 平井要安으로 행세하였다. 이후 寬文 11年(1671)인 18歲에 大和國에서 의학을 배우기 위해 京都로 옮겨 後世家別派로 明나라의 『內經』 考證注解의 경향을 日本에 보급한 饗庭東庵 문하의 味岡三伯에게 入門하여 의학을 배웠다. 三伯의 스승인 饗庭東庵은 後世家別派를 수립한 인물이다. 32歲 되는 貞享 2年(1685年)春에 『新編灸法口訣指南』 五卷을 최초로 저술하였다. 또 35歲쯤에는 양자로 들어간 집에서도 버림을 받아 元祿 1年(1688) 경에 岡本一抱子로 스스로 개명했다. 이후 많은 著作을 刊行하게 된다. 寶永 元年(1704年) 경

에는 京都로 이사하여 살았고 그 후에 살던 곳에서 별세했다. 卒年은 享保 元年(1716)인 享年63세(1654~1716)라는 설과 寶曆 4年(1754)인 69세(1686~1754)라는 두 설이 있다.

그는 難解한 古醫書를 平易하게 注釋한 診解書를 많이 남겼고 江戸時代의 醫師속에서 가장 많은 醫書를 出版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겼다. 『診解書』의 저술은 그에게 광범위한 人氣를 가져다주었다. 한번은 형인 近松이 一抱에게 “자네는 無學인 사람이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를 저술했지만 후세에 원전을 읽지 않고 언해만을 읽는 의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 조잡한 의술로 인명을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편이 좋다”라고 충고를 하였다. 일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이로부터 診解書를 만드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저서를 보면 湯藥, 鍼灸의 두 방면에 정통한 학식을 겸비한 명의이고 또 『北條時頼傳』을 저술한 사학자이기도 하였다.

一抱의 著作으로는 『新編灸法口訣指南』, 『臟腑經絡詳解』, 『格致餘論診解大成』, 『廣益本草大成』, 『醫方大成論和語鈔』, 『素問入式運氣論奧診解』, 『和語本草綱目』 등이 있다.

『運氣論奧診解』는 유운서가 지은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해 풀이를 한 서적으로 『運氣論奧』 3卷을 7卷으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그는 原書의 그림에 대하여 자세한 說明을 加하였고 《運氣論奧》의 原文에 대하여 訓古를 加하고 原文의 뜻을 상세히 解釋하여 누구라도 책을 접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原著의 目錄을 一卷 中에 保存하여 독자들이 하여금 原著의 面貌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自序는 없고 寶永 甲申年(1704年)에 小川玄昌이 쓴 서문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송나라 유운서가 지은 『運氣論奧』는 더욱 의학계의 현묘한 기틀이 되니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급히 힘써야 할 내용이다. 지금 세상에 비록 『運氣論

18) 岡本一抱 [cited on August 23, 2017]: Available from: <https://ja.wikipedia.org/wiki/%E5%B2%A1%E6%9C%AC%E4%B8%80%E6%8A%B1>.

19) 岡本爲竹. 運氣論奧診解. 古書.

輿口義, 『運氣論奧疏抄』 등의 책이 있어 설명을 하고 주석을 달았으나 잘 되고 잘못된 점이 섞여 있어 독자들이 읽기가 어렵다.

일포자(一抱子, 岡本爲竹의 號이다) 선생은 박람 박식한 재주로 두루 고서에서 내용을 뽑아 모아 이제 또 새롭게 『運氣論奧診解』 7권을 지으니 그의 뜻은 어린 사람들이 글을 잘 보지 못하는 걱정을 깊이 염려한 것이고 또 뜻만 분명히 밝히기를 힘쓸 뿐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유온서의 서문에 있는 정신을 숭상하고 본받았으며 한문을 일본 말로 풀고 사이사이 그림을 덧붙였으니 상제하면서도 간략한 것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며 우리들에게는 밤의 등불과 같다고 이룰만하다.

범례에서 岡本爲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運氣論奧』는 宋나라 때의 劉溫舒가 지은 冊으로 『素問』의 『運氣七篇』과 王冰의 『素問次註』, 『玄珠密語』 등에 根據하여 五運六氣의 深奧한 理致를 아주 자세하게 解說한 것이다. 그러나 天地의 有形, 無形의 理致에 대한 記錄은 배우는 者가 그 理致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비록 『疏抄』, 『口義』, 『口解』, 『鼈頭』 등의 解說書가 있으나 初學者로서는 여전히 理解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나 岡本爲竹은 淺陋함을 돌아보지 않고 다시금 日語로써 解釋을 加하여 『診解』 七卷을 지으니 目的은 初學者로 하여금 쉽게 學習하게 하는 데 있다.

그가 언해한 내용 중 序文의 診解를 통해 대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夫醫書者는 乃三墳之經이니

〔診解〕 “夫”는 語助辭이다. “醫”는 後漢書 郭玉傳에 “醫者 意也”라 하였고 日華子에는 “醫者 理也”라 하였으니 醫論은 마음의 뜻(意)으로부터 理致를 헤아린다는 意味이다. 또 醫師는 항상 治療에 술(酒)

을 使用하므로 醫라는 글자에 酉가 들어 있으니 酉는 옛날의 酒字이다. “乃”는 連接辭이다.

“三墳”은 孔安國 尚書序에 “伏羲, 神農, 黃帝之書를 謂之三墳이니 言大道也라”고 하였다. 墳은 곧 크다는 뜻으로 神農, 伏羲, 黃帝의 三皇이 論한 內容은 모두가 다 큰 道理이므로 三皇의 冊을 三墳이라고 부른다. 三皇의 三墳之書는 伏羲氏의 『易經』과 神農氏의 『本草經』과 黃帝의 『內經』을 가리킨다. “經”은 聖人의 글을 經이라고 稱하니 經은 곧 常으로 사람이 반드시 遵守해야할 事項이오, 이것을 버리고는 道를 실을 수 없으므로(舍此以外 不能載道) 經이라고 부른다.

이 內容을 綜合해보면 醫家의 理論은 오로지 陰陽으로 根本을 삼는데 陰陽之道는 伏羲氏의 『易經』에서 비롯하고, 醫師가 病을 治療할 때 오로지 藥을 쓰는데 醫藥之道는 神農氏의 『本草經』에서 비롯하고, 醫學의 臟腑, 經絡, 病能, 鍼灸 等の 詳細한 理論은 黃帝의 『內經』에서 始作되니 이를 通해 볼 때 醫書는 『易經』, 『本草經』, 『內經』의 三種이 基本이 된다. 後世에 流傳된 諸醫書는 모두 이 세 卷을 根本으로 삼아 이로부터 퍼져나간 것으로 醫書는 곧 伏羲, 神農, 黃帝의 三墳의 經書가 基本이라는 뜻이다.

『類經』 中에 「醫易義」 一篇이 있는데 또한 “醫之所本이 伏羲氏의 易가운데 충분히 區別하고 考察하는 內容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伏羲는 觀天文하사 造甲曆하시고

〔診解〕 伏羲, 神農, 黃帝에 對한 記錄은 『史記』와 『鑑要綱目』의 五帝本紀에 나온다. “伏羲”는 木德으로 王이 되었다. “文”은 文章으로 하늘에 日, 月, 星, 辰 等の 文章이 있기 때문에 天文이라 稱한다. “造甲曆”은 『通鑑綱目』 前編注에 “起于甲寅 支干相配 爲十二辰 六甲 天道周矣”라 하였고 『增韻』에 “曆者 數也”라 하였다. 曆은 日本말의 日曆과 같다. 曆數는 六十甲子와 合致되고 六六三百六十度로 完成되므로 甲曆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甲曆은 曆數만을 單獨으로 指摘하는 것은 아니고 一切의 陰陽

五運天度の 度數를 包括한다. 따라서 『玉海』에서도 “伏羲在位 始有甲曆五運”이라 하였다.

神農은 嘗百藥하사 制本草하시고

[諺解] “神農”은 火德으로 王이 되었다. “百藥”은 많은 藥이다. “嘗”은 藥의 氣味와 性能과 功效를 區別하여 밝힌 것이니 『溯回集』에 상세히 실려 있다. “制本草”는 지금 世上에 傳해지는 『神農本草經』三卷이 神農氏가 傳한 것이니 藥性を 오로지 記錄한 책이다. 그러나 여기서 本草라는 呼稱은 書名만을 指摘한 것이 아니고 一體의 醫藥之道를 總稱하여 本草라 한 것이다.

黃帝는 論疾苦하사 成素問하시니

[諺解] “黃帝”는 土德으로 王이 되었다. “論疾苦”는 人身에 있는 疾病의 苦患으로 問答을 한 것이다. “成素問”에서의 『素問』은 『靈樞』를 包括한다.

伏羲氏는 天上의 日, 月, 星, 辰等の 文章을 仰觀하여 陰陽消長과 五運變化의 道理를 研究하여 甲曆을 創造하였으며 神農氏는 百藥을 맛보아 本草醫藥의 道를 制作하였으며 黃帝는 人身의 疾病苦患之理를 論하여 『內經素問』의 問答을 이루셨으니 後世의 醫道는 곧 三皇經典著作에 뿌리를 두고 流傳되어 왔기 때문에 醫書上에서 이들의 글을 三墳之經이라고 부른다. 살피건데 伏羲氏의 造甲曆이 特히 醫家의 要點이 되니 素問에서 言及한 氣運之道는 日(日)로써 달을 定하고 節氣로서 一歲를 이루는데 모두 干支의 六十配合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일 日, 月, 節, 歲之法과 干支六十之合이 없다면 五運의 運行과 司天, 在泉之位를 確定할 수 없고 또한 疾病의 輕重과 死期의 遲速을 알아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干支가 主管하는 日辰, 月建도 辨明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醫家之道는 甲曆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伏羲氏는 仰觀天文하시고 俯察地理하셨으니 그가 지은 甲曆은 모두 陰陽消長之理에 符合한다. 예를 들어 十一月冬至日은 地雷復(土木)之氣요, 五月夏至日은 天風姤(金木)之氣가 된다. 原來 甲曆은

卦爻陰陽之理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易道가 그 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甲曆이 바로 易이라고 말할 수 있다. 葛哲이 이르기를 “易在我 我身有易”이라 하니 이로 보건데 醫道는 伏羲氏로 뿌리를 삼고 易과 甲曆은 醫道의 本原이 된다.

因知其道奧妙하야 不易窮研이니

[諺解] “其道”는 醫道이다. “奧”는 深奧이다. “妙”는 玄妙니 幽微하여 不可測知 故로 妙라 한 것이다. “研”은 비유컨데 玉을 가는 것이니 반드시 갈아야만 本質의 精光이 드러나니 곧 本理를 研究한다는 뜻이다. 이 句節의 뜻은 醫書는 三墳의 聖道로 深奧玄妙한 것이니 힘써 研究하지 않으면 쉽게 터득할 수 없다는 內容이다.

自非留心刻意면 豈達玄機리오

[諺解] 이 序文은 五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까지가 一段이 된다. “留心”은 時時로 冊을 읽는 것이고 “刻意”는 갖가지 깊은 精誠과 努力을 다해 힘들여 求하는 것이다. “玄”은 幽微深遠이다. “機”는 繫辭下傳의 注에 “去無入 有理而無形 不可以名尋 不可以形觀者也”라 하였다. 이는 道理가 深遠하다는 뜻을 指摘한다.

以上の 內容은 醫道는 모두 聖人에게서 나와 窮究하고 研究하기가 쉽지 않으니 後人이 醫道를 배워 通하고자 함에 있어 留心刻意하지 않으면 어찌 能히 그 헤아리기 어려운 玄機之理를 通達할 수 있겠는가 라고 說明한 것이다. 다시 말해 醫道의 玄機를 알고자 할진댄 留心刻意하지 않고는 不可함을 밝히고 있다.

且以其間에 氣運이 最爲補瀉之要니

[諺解] 이 句는 第二段의 始作이다. “以”는 意(생각컨데)의 뜻이다. “其間”은 醫書에 記述된 內容을 이른다. 醫書속에 記述된 六氣五運之道는 醫家에서

運用하는 補瀉의 要道가 된다. 運氣를 運用한 補瀉法은 『素問』의 「至眞要大論」과 本書의 第三十一篇에 詳細히 나와 있다.

雖備見黃帝與岐伯 鬼臾區問對나 粉糶篇章하야 卒無入法하야 稍難施用이라

[諺解] “岐伯”은 黃帝의 六臣가운데 하나이다. “鬼臾區” 또한 六臣중의 하나로 號는 大鴻이다. 『素問』 中の 「天元紀大論」 一篇은 黃帝와 鬼臾區의 問答이다. “問對”는 黃帝가 묻고 岐伯, 鬼臾區가 對答한 것이다. “粉”을 다른 版本에 分字로 되어 있는데 옳지 않다. “卒”은 草速(급히, 신속하게)의 뜻이다. “粉糶” 두 글자는 모두 雜亂으로 解釋한다. 『內經素問』가운데 비록 黃帝가 岐伯, 鬼臾區와 問答한 것을 詳細히 실어 五運六氣之道를 갖추어 記述하였으나 『素問』의 諸篇, 諸章 가운데 여진히 紛糶雜亂하여 곧 바로 運氣의 法을 살펴볼 수가 없다. 그리하여 後人들이 運氣補瀉의 法則에 對해서 使用하기가 어렵다. “篇章”은 『素問』의 各篇章을 가리킨다.

余性識偏陋나 竊慕眞風하고 棲心聖典하야 積有歲月이라

[諺解] 이 句節부터 第三段이 始作된다. “余”는 劉溫舒 自稱이다. “性”은 氣性이오, “識”은 知識이다. “偏陋”는 固執鄙陋이다. 여기서 劉溫舒가 自稱 性識이 偏陋하다고 한 것은 謙虛之辭이다. “竊”도 역시 自謙之辭이다. “慕眞風”의 眞風은 眞人之風格이다. 이 뜻은 作者가 聖人之教를 戀慕하여 그를 좇아 學習했다는 뜻이다. 그가 戀慕한 것은 바로 『素問』의 運氣之道이다. “棲心”은 專意留心과 같으니 溫舒가 항상 聖人の 經典에 마음을 둔 것이다. “聖典”은 『內經素問』을 指摘한다. “積有歲月”은 慕眞風하고 棲聖典한 것이 오래되어 歲月이 累積되었다는 뜻이다.

雖吏役塵勞之暇라도 亦未嘗暫捨筆硯리니

[諺解] “吏役”의 吏는 官吏의 總稱이오, 役은 부여받은 官役이다. 塵은 자기 몸에 매여 있는 世俗의 일이다. “勞”는 煩勞이다. “萃”는 選拔하여 모으는 것이다.(選拔其萃)

斯文이 久已盈軸이라

[諺解] “斯文”은 五運六氣之文이다. 이 句節의 뜻은 劉溫舒가 비록 朝散郎大醫學司業의 官職을 擔當하여 官吏로서의 役割이 매우 바빠 틈이 매우 적었으며 또 世俗之事에 바쁘게 뛰어들다니느라 疲困하였지만 잠시라도 붓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오랜 세월이 쌓이자 收集된 五運六氣之文이 마침내 卷軸이 이루어져 『運氣論奧』의 著作이 完成되니 全書 모두 三冊이 되었다.

莫不究源附說하고 解惑分圖하야

[諺解] 이 句節부터 第四段이 시작된다. 運氣論奧를 지은 本旨와 運氣의 本源之理를 推究했음을 敘述하고 있다. “源”은 內經을 가리킨다. “附說”은 諸家의 論說을 附采(덧붙여 따다)는 뜻이니 함께 收集하라는 뜻이다. “解惑”은 後學의 疑惑을 解釋한다는 뜻이다. “分圖”는 每篇마다 각각 하나의 圖를 나누어 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運氣之圖를 상세히 그렸다는 뜻이다. 이 冊에는 모두 三十一圖가 실려 있다.

括上古運氣之秘文하고 撮斯書陰陽之精論하야

[諺解] “括”은 集也라, “上古”는 太古也니 『內經』을 問答하던 時代이다. “秘文”의 秘는 秘密스럽다는 뜻이 아니고 道理가 매우 深奧한 文章이니 이곳에서는 『素問』의 文章을 말한다. “撮”은 采(말 채)의 뜻이다. “斯書”는 運氣論이다. “陰陽”은 運氣之義오, “精論”은 精粹한 論說의 뜻이다.

若網之在綱하야 珠之在貫하야 粲然明白이라 箋明奧義에 咸有指歸하야 詎飾文辭리오

【諺解】“網”은 網目(그물눈)이다. “網之在綱”은 網目の 總合이 大綱이 되니 이는 곧 一切의 理義를 巨細大小를 莫論하고 모두 記述하였다는 뜻이다. “珠之在貫”은 실로 구슬을 꿰어 그 結果 구슬을 비록 포개어 쌓아 놓았지만 分明하고 昏亂스럽지 않다는 意味이니 다시 말해 條理가 있어 어지럽지 않고 말의 이치(辭理)가 一絲不亂하다는 뜻이다.

以上の一段은 『運氣論奧』는 上古黃岐의 運氣之秘文을 概括하여 陰陽五行의 精粹之論을 뽑아 엮으니 그물에 綱(머리, 그물의 위쪽 코를 쥔 굵은 줄)이 있어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빠트리지 않는 것 같고 구슬을 꿰는 것 같아 辭理(文章의 理論)가 分明하다는 것을 거듭 說明한 것이다.

“粲然”은 明淨의 뜻이니 여기서는 文章이 바르고 뜻이 상세하여 記述된 內容이 明白하다는 뜻이다. “箋”은 表現하다, 써서 記述하라는 뜻으로 理致를 表明(分明하게 나타냄)하는 것을 箋明이라고 한다. 箋명한 內容은 다름 아닌 五運六氣가 運行하는 深奧한 理致인 것이다. “指歸”은 『爾雅』의 解釋에 따르면 指意歸鄉(提起한 內容들이 다 체자리로 歸着하다, 原典에 根據를 가지고 있다)의 뜻이다. 따라서 “咸有指歸”란 내가提起한 內容들은 모두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니 根據에 立脚해서 記述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冊에 記述한 모든 內容들은 결단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적어 넣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詎飾文辭”은 “어찌(詎는 어찌 거) 文辭로써 修飾하리오”의 뜻으로 文章의 法度에 있어서 修飾을 加하면 흔히 眞實을 잃게 되므로 이 冊은 단지 理義만 分明히 밝혔고 文辭의 修飾에 對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庶易曉晤리니 使覽者經目이면 頓知妙道가 幾過半矣리라 詎敢沽譽리오

【諺解】 이 句節부터 第五段이 始作한다. “曉晤”는 讀者들이 쉽게 運氣之理를 깨닫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覽者”는 後人으로서 이 冊을 읽는 者들이다. “經目”은 한번 이 冊을 閱覽하라는 뜻이다. “頓”은 매우 빠른 時間이다. “妙道”는 五運六氣의 玄妙之理

를 말한다. “過半”은 10에 6,7의 뜻이다. 이 句節의 뜻은 讀者가 만일 이 冊을 읽게 된다면 매우 빨리 運氣之理에 對해서 過半以上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過半 두 글자도 역시 謙遜을 나타내는 말이다. “詎敢沽譽”는 溫舒가 이 冊을 지은 뜻은 天下後世의 讀者로 하여금 運氣의 道理를 알게 하는데 있을 뿐이니 어찌 敢히 沽名釣譽(이름을 팔고 名譽를 낚시질한다는 뜻으로 名譽를 求하는 말)하는데 마음을 두어서 한 일이겠는가의 뜻이다.

且畏醫藥之差誤하야 遺人夭殃하며 絶人長命兩라

【諺解】 이 句節의 뜻은 後世의 學者가 運氣診病의 理致를 몰라 用藥에 실수를 하여 도리어 患者로 하여금 일찍 죽는 災殃을 만나게 하고 사람이 응당 살아야 할 天年長壽를 短折케 할까 두렵다는 뜻이다.(畏는 끝까지 解釋한 다음에 새긴다) 作者는 이것을 거울삼기 위하여 이 冊을 지은 것이지 별다른 뜻이 없다. “夭殃”이란 말은 『素問』의 離合眞邪論에 나온다. 夭는 短折의 뜻이니 天年(타고난 나이)의 半을 끊는 것을 夭라 부른다. 殃은 敗의 뜻이니 壽命을 損敗시키는 것을 殃이라 부른다.

元符 己卯歲 丁丑 望日에 序하노라

【諺解】 “元符”는 宋代 第七代 임금인 哲宗(1085~1100年 在位)때의 年號이다. “己卯”는 元符二年이고(筆者注：西紀 1099年이다) “丁丑”은 12월이다. 詳細한 것은 本書 中卷 月建論에 나온다. “望日”은 陰曆 15日이다. “序”는 劉溫舒의 自序이다.

岡本爲竹의 『運氣論奧諺解』는 『運氣論奧口義』, 『運氣論句解』, 『運氣論奧疏鈔』, 『鰲頭運氣論』의 內容을 섭렵하고 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은서의 『運氣論奧』를 가장 쉽게 설명하고 핵심을 풀이한 대단히 훌륭한 解說書이다.

2) 『年中運氣指南』

『年中運氣指南』은 岡本爲竹이 어려운 운기이

론을 쉽게 설명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응용하도록 한 책이다. 그의 自序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가을밤에 文林堂에서 놀고 즐기다가 세상사를 이야기하면서 술에 흠뻑 취했다. 글에 능한 사람이 이르기 “오운육기의 법은 오직 醫家들만 앞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분별하면 年中의 風雨寒熱과 穀菜果物 등의 多少, 盛衰를 관찰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한자와 일본 글자를 혼용하여 운기서적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도를 알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책상에 앉아 붓을 잡고 年中運氣指南 한 권을 지었다.

이 책은 감히 내가 박식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童蒙들이 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때는 正德 四年(甲午, 1714) 冬 室日에 攝生堂에서 華洛 隱醫 岡本氏 爲竹 一抱子が 쓴다.

이어서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매해의 운기를 파악하는 일
- ② 한해에 다른 이름이 있는 일
- ③ 년의 상중하吉凶의 일
- ④ 五運이 각각 氣象을 주재하는 일
- ⑤ 客氣가 주재하는 일
- ⑥ 운기 일년의 일
- ⑦ 년중운기의 大概를 아는 일
- ⑧ 主客의 六氣가 각각 氣象을 주관하는 일
- ⑨ 主客六氣의 上下의 일
- ⑩ 主六氣의 일
- ⑪ 年의 十二支에 의하여 年中의 氣를 파악하는 일
- ⑫ 十干에 의하여 年의 運氣를 파악하는 일
- ⑬ 年中의 風雨善惡을 파악하는 일
- ⑭ 正月朔日의 風雨에 의하여 年中의 善惡을 파

악하는 일

- ⑮ 旱魃에 비를 기도하는 일
- ⑯ 酉의 날에 風이 있는 일
- ⑰ 二百十日, 二百二十日, 放生會에 바람이 있는 일
- ⑱ 八十八夜名殘의 霜事
- ⑲ 半夏가 생하는 일, 아울러 此日毒降 한다는 俗說의 일
- ⑳ 入梅의 일, 아울러 栗花가 떨어진다는 俗說의 일
- ㉑ 二季 彼岸의 일
- ㉒ 十方暮의 일, 天一天上을 함께 설명함
- ㉓ 八專의 일, 八專에 뜬을 뜨는 일을 함께 설명함, 癸亥에 뜬을 뜨는 일을 덧붙임
- ㉔ 土用の 일, 土用 間日의 일을 함께 설명함. 土用에 뜬을 뜨는 일을 덧붙임
- ㉕ 소금의 滿干의 일, 知死期の 일을 함께 설명함, 每日의 鹽指引時刻의 일을 덧붙임
- ㉖ 사람의 生死에서 死期를 아는 것이 있는 일
- ㉗ 二十四氣, 七十二候의 일
- ㉘ 동지의 일, 亥子의 義를 함께 설명함
- ㉙ 追加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에게서 좀 생소한 ㉒十方暮와 天一天上 ㉓八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陰陽家에 이른바 “十方暮”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干支의 五行(方位五行)이 모두 相克하는 날을 지적하여 說明한 것이다. 甲申에서 始作하여 癸巳까지는 모두 十日이다. 그러나 이중 丙戌 己丑의 兩日은 干支가 같거나 相生하고 相克하지 않는다. “暮”는 干支가 相克하여 生化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壬(水)午(火)相克, 癸(水)未(土)相克, 甲(木)申(金)相克, 乙(木)酉(金)相克, 丁(火)亥(水), 戊(土)子(水), 庚(金)寅(木), 辛(金)卯(木), 壬(水)辰(土), 癸(水)巳(火)는 모두 相克之日이므로 十方暮라고 稱한다. 壬午日에서 始作하여 癸巳日에 끝난다. 그러므로 俗稱 十方暮는 “申上于甲, 巳入于癸”라 하는데 이는 기억하여 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十方暮가 끝나

20) 岡本爲竹. 年中運氣指南. 古書.

는 癸巳日은 天一天上이라고 부른다. 按진대 사람의 腰部, 腰眼穴을 뜸뜨는 때 十月 癸亥日에 뜸뜨는 것이 좋다. 이날 이 穴에 뜸뜨는 것을 “癸亥之灸”라고 부르는데 納音法에 根據하여 定한 것이다. 癸亥日의 干과 支는 五行에서 모두 水에 속하고 納音에서 癸亥는 “壬戌 癸亥 大海水”가 되어 水音에 歸納한다. 腰眼穴은 眞水를 補益하기 위하여 뜸뜨는 곳이다. 따라서 十月의 月建인 亥의 水生之時에 干支와 納音이 모두 水에 屬하는 癸亥日을 擇하여 灸를 行하는 것이다.

陰陽家에는 또 이른바 “八專”이라는 用語가 있는데 여기서 “專”은 專一의 뜻이다. 十干 十二支의 五行(方位五行)에 의해 分析해 보면 專一合同하는 것들은 모두 한곳에 모여 있고 그 수가 여덟이므로 “八專”이라 한 것이다. 60甲子 전체를 조사해보면 모두 十二專이 된다. 戊辰, 己丑, 戊戌, 丙午, 壬子, 甲寅, 乙卯, 丁巳, 己未, 庚申, 辛酉, 癸亥이다. 그러나 이중 戊辰, 己丑, 戊戌, 丙午의 位置는 圖上에 分散되어 있기 때문에 八專에 屬하지 않는다. 壬子로부터 始作하여 癸亥에 이르러 그치는 것 중에서만 八專을 취한다. 壬子부터 癸亥까지의 日數는 모두 十二日이지만 이중 四日의 干支는 五行이 合一하지 않는다. 이들은 間日이라고 부를 수 있다. 俗稱“八專八日 間日四日”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壬子는 모두 水이므로 壬子日은 專日이 된다. 癸는 水, 丑은 土로 干支의 五行이 專一하지 않으므로 癸丑日은 間日이 된다. 甲寅 乙卯는 모두 木이므로 專日이다. 丙은 火, 辰은 土로 專一 하지 않으므로 丙辰日은 間日이 된다. 丁巳는 모두 火이므로 專日이다. 戊는 土, 午는 火로 專一 하지 않으므로 戊午日은 間日이 된다. 己未는 모두 土이고 庚申, 辛酉는 다 金이므로 모두 專日이다. 壬戌은 水, 土이므로 間日이 되고 癸亥는 모두 水가 되므로 專日이 된다. 이것이 壬子로부터 癸亥에 이르기까지의 “八專”이다. 이날은 干支의 五行이 合同專一하여 過旺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灸火 등을 忌諱한다.

7. 香月牛山の 運氣算法俗解

香月牛山の 이름은 則眞, 字는 啓益, 通稱은 貞庵, 姓은 香月, 號는 牛山이고, 교토 및 후쿠오카현의 江戶中期의 後世派의 第一人者이다. 1656年(明曆 2), 築前國 遠賀郡, 즉 현재의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다. 香月家は 400年間에 걸쳐서 香月城主로써 지속했던 가문이었지만, 牛山보다 4세대 전에 小早川隆景에게 정벌 당했다. 그 후는 대대로 백성으로써 가문을 이어왔다.

牛山은 젊었을 때, 貝原益軒에게 儒學을 배우고, 現在의 오이타현에 있는 豊前(옛 지방의 이름으로 지금의 福岡·大分の 두 현에 걸친 지역)의 中津侯의 藩醫로 임무를 맡았고 鶴原玄益에게 의학을 배웠다. 1685年(貞享 2)인 30歲 때에 豊前 中津侯 小笠原氏의 侍醫가 되었다. 그 무렵에는 종종 貝原家에 출입하고, 益軒의 부인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를 했던 적도 있어 牛山에게 貝原家란 弟子로써 또한 主治醫로써 매우 깊은 친분이 있었다. 그 때부터 명의로써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1699年(元祿 12)에 44歲의 나이에 京都로 가서 開業을 했다. 그 때 많은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었던 大覺親王의 병을 천황의 명령으로 훌륭하게 치료하여 명의로써의 이름을 날렸다. 그는 교토에 사는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많은 문화인과 교류하고 지식을 함양하였다. 1716年(享保元) 61세 때에 小倉의 継후인 小笠原氏에게서 초빙되어 小倉로 주거를 옮기고 말년을 보냈다.

牛山은 京都時代, 小倉時代に 상당히 많은 著書를 남겼다. 그것들은 대부분 한자와 일본 글자를 섞어서 저술하여, 當時의 大衆 啓蒙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저서로는 『牛山活套』, 『牛山方考』(醫學鉤玄), 『藥籠本草』, 『養生三部作』으로 알려진 『婦人壽草』(1692年), 『小兒必用養育草』(1703年), 『老人必用養草』(1716年) 등이 있다.

牛山은 85歲로 天壽를 다 누리고 1740年 3月 16日에 별세하였다. 現在, 牛山の 墓는 北九州市 小倉北區의 圓應寺와 八幡西區 吉祥寺에 있다.²¹⁾

21) 香月牛山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aeam.umin.ac.jp/siryouko/kadata/atuki.tml>.

『運氣算法俗解』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²²⁾

천지는 一氣일 따름이다. 一이 兩儀를 생하고 三이 사상·오행·육기·칠성·팔괘를 다하여 그 숫자를 나누니 숫자는 사물의 시작인 것인저. 노자가 이르기 를 “一은 二를 생하고 二는 三을 생하고 三은 萬物을 생하니 대저 수라는 것은 모든 이치의 시작하는 틀이고, 귀신도 정황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이치가 미묘해서 보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먼저 그 數를 통해서 알게 된다. (天地者는 一氣也耳라 一生二儀而三盡四象 五運 六氣 七星 八卦하여 分其數하니 數權與乎인저 老聃有云 一生二하고 二生三하고 三生萬物이라하니 夫數者는 衆理之先機而鬼神도 無所遁情故로 萬物之理 微妙而難見者는 必先因其數而識之라)

그리고 著者는 이 책을 짓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시기후에 있어 19년에 7번 윤달을 두는 계산법은 해설함에 대부분 尚書의 註疏로써 하나 문장이 생략되고 간단하여 쉽게 통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자가 흔히 버려두고 논하지 아니한다. 대개 그 술법에 정통하지 않으면 그 이치에 또한 밝지 못해 끝내 運氣의 算法이 폐지되는데 까지 이르게 되니 가히 탄식할만한 일이다. (如四時氣候에 十九七閏算法은 解之多以尙書註疏나 然이나 于文省簡而不易通曉 故로 講之者 往往措而不論하니 蓋其術不精則于理亦不明하야 終至廢運氣算法하니 可勝嘆哉라)

이어서 運氣算法俗解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運氣算法俗解 卷之上的 첫머리에는 『내경』 원문과 주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經曰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焉

經은 『소문·육절장상론』이다. 行이라는 것은 天보다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천체는 둥글고 그 순환은 365도와 4분의 1도이다.

지구는 그 안에 있다. 天은 항상 땅을 좌선하여 하루 낮밤 사이에 한 번 돌고, 다시 1도를 더 돈다. 태양은 天을 이어서 조금 늦게 돌기 때문에 하루 낮 밤 사이에 365도와 4분의 1도를 돌아 하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도이다.

이 미치지 못하는 1도를 태양의 행도로 삼는다. 달은 天을 이어서 더욱 늦다. 하루 낮밤 사이에 365도 안에서, 352도와 나머지를 행하여 天보다 늦는 것이 13도와 나머지가 있다. 이 늦는 것을 1일의 月行으로 삼는다. 따라서 일행 1도 월행 13도 有奇라고 하는 것이다.

有奇의 有는 又라고 읽는다. 奇는 사물의 수가 나머지가 있음을 말한다. 13도와 또 나머지가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경문에서 日行 月行을 정말로 도는 數를 말하지 않고 돌지 않는 것의 수를 가지고 行도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하여 말한다. 이것은 曆家의 日月右行說이다. 천 일 월이 모두 동일하게 좌선한다고 하는 것은 장 횡거가 말하는 것과 같다.

대개 일 월 성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모두 하늘에 순응하여 움직인다. 따라서 서쪽으로 가라앉아 地下를 돌아 동편에서 떠서 지상 위를 간다.

하늘에 거슬러 右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월이 天에서 물러나는 것을 가지고 行도로 하면 算法이 簡易하여 아주 편리하다. 나아감을 물러난다 하고, 順行을 逆行이라 하고, 左旋을 右旋이라 하는 것은 曆家의 舊法이다. 실은 天은 양의 지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태양보다 빨리 움직인다. 태양이 그 다음을 잇고 달은 陰이기 때문에 도는 것이 느리고 함께 좌선한다. 맺들에 개미가 앉아 함께 좌선하되 右行이라고 말하는 비유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양설 모두 행해져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지금 왼쪽에 작은 그림을 그려 그 의미를 나타낸다.

22) 香月牛山. 運氣算法俗解. 古書.

Fig. 1. A picture of the sky, the sun, and the moon moving to the left(하늘, 해, 달이 왼쪽으로 돌아 운행하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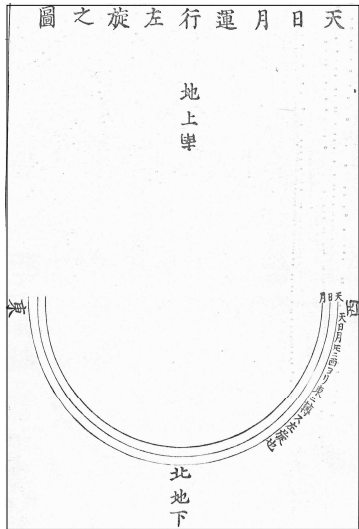


그림 속의 문장을 해석하면 “天·日·月이 함께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여 左旋한다.”이다.

Fig. 2. A picture which is explained simultaneously as turning to the left and going to the right, but not misalign with each other(왼쪽으로 도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함께 설명되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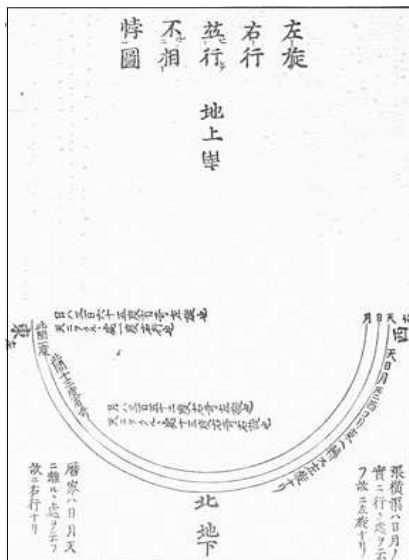


그림 속의 문장을 해석하면 “日은 365도와 또 나머지(有奇) 좌선한다.

天보다 늦은 것이 1도이고 右行한다.

月은 352도와 有奇(원문의 右는 有의 誤인 듯)를 좌선한다.

天보다 늦은 것이 13도와 有奇(원본의 右는 有의 誤인 듯)를 右旋한다.

張橫渠는 日月이 실지로 行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左旋이다.

曆家は 日月이 天보다 늦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右行이 된다.”이다.

『運氣算法俗解』에는 이어서 “大小月三百六十五日而成歲 積氣餘而盈閏”에 대한 주석이 있고 “十九七閏之算法” “日行一度算法” “月行十三度而有奇算法” “積氣餘而盈閏算法” “運氣論劉溫舒說之算法” “運氣論與六化 差三十度而有奇之算法” “運氣論與太陽直日之算法” 등이 있다.

Ⅲ. 기타 운기서적

위에서 설명한 운기서적 이외의 운기관련서적에 대하여 목록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이 속에는 순수 운기서적이 아닌 天文, 氣象, 占卜, 曆法에 관한 서적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리라 사료된다.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을 먼저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을 뒤에 배열하였다.²³⁾

Table 1. Five Circuits And Six Qi Books published in Japan(일본에서 간행된 운기서적)

번호	書名	著者	成立年	備考
1	運氣一言集	吉田 / 宗桂(意安)	1540	일본 최초의 운기서적으로 사료됨.
2	五六秘訣	曲直賴/道三	1571	
3	運氣私鈔		1572	內閣에 있는 室町時代寫本.
4	運氣抄	回生庵 /	1583	運氣論與口義의 下二

23) 國立學研究資料館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www.nijl.ac.jp/>

		玄璞		로 사료됨.
5	運氣究理論	西 / 晏明	1584	
6	運氣論一言集(抄)	吉田宗恂	1654	吉田宗桂의 運氣一言集의 抄本으로 사료됨.
7	運氣諸論圖	吉田宗恂	1654	
8	運氣論奧纂要全解	三屋元仲	1686	運氣論奧의 주석서로 사료됨.
9	運氣纂要圖說	三屋元仲	1686	運氣論奧纂要全解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사료됨.
10	運氣纂要或問	三屋元仲	1686	運氣論奧纂要全解의 부록으로 사료됨.
11	運氣纂要附錄	三屋元仲	1686	運氣論奧纂要全解의 부록으로 사료됨.
12	運氣論講義	淺井周伯 高弟述松岡玄達(恕庵)筆錄	1686	淺井周伯의 高弟가 설명을 하고 松岡玄達이 써서 기록함.
13	運氣論奧備考	野村 / 玄順	1690	運氣論奧의 주석서로 사료됨.
14	素問入式運氣論奧		1694	頭註가 달려 있고 銅駝坊 書肆村上 平樂寺 壽粹라고 되어 있음.
15	運氣指南後篇	西川 / 如見	1716	岡本爲竹의 運氣指南을 이어 天文, 氣象, 曆法, 雜術 등을 설명하고 있음.
16	素問入式運氣解	志津 / 大二郎	1757	運氣論奧의 주석서로 사료됨.
17	運氣考農事	小山 / 孝重	1837	
18	運氣七篇古鈔本考異	森 / 立之	安政(1854~1859)中	
19	運氣造	志村 / 恒憲	1856	
20	運氣考	松浦 / 正規	1858	別書名이 戊午晴雨考로 1858년 戊午년의 기상을 설명한 책. 일본에서 기상관련서적에 運氣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음.
21	運氣括要			
22	運氣考			氣象서적으로 사료됨.
23	運氣考	賀茂 / 規清		氣象서적으로 사료됨.
24	運氣考	武出 / 九童子		氣象서적으로 사료됨.
25	運氣考	松井 / 昌胤		氣象서적으로 사료됨.
26	運氣考抄略			氣象서적으로 사료됨.
27	運氣算法			
28	運氣算法解			

29	運氣算法口解			
30	運氣指揮			
31	運氣指掌			
32	運氣主病			
33	運氣捷徑指南	三宅 / 意安		
34	運氣圖說辨			
35	運氣說			
36	運氣說抄			
37	運氣造	佐佐木 / 政詮		
38	運氣通準	中橋 / 素玄		
39	運氣提要	良安		
40	運氣之書			
41	運氣之說			
42	運氣之傳書	森田 / 重次		
43	運氣辨論			
44	運氣約指			
45	運氣略說			
46	運氣流行圖			
47	運氣六十年圖	星野 / 実宣		
48	運氣論抄私記	山口 / 玄		
49	運氣論新圖說	南里		
50	運氣論筆記			

IV. 결론

일본의 운기학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본에서의 최초의 운기서적은 吉田宗桂가 쓴 運氣一言集으로 추정된다.
2. 일본 운기학의 主流는 유온서가 쓴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한 주석과 연구이다.
3.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玄璞의 『運氣論奧口義』, 鵜飼石齋의 『運氣論句解』, 松下見林的 『運氣論奧疏鈔』, 失名氏의 『鼈頭運氣論』, 岡本爲竹의 『運氣論奧諺解』의 5종과 三屋元仲의 『運氣論奧纂要全解』, 野村玄順의 『運氣論奧備考』, 1694년 平樂寺에서 인쇄한 『素問入式運氣論奧』, 志津大二郎의 『素問入式運氣解』 등이 있다.
4. 논문에서 언급한 『素問入式運氣論奧』의 5種의 주

석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運氣論奧口義』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로서 이후 주석서에 큰 영향을 미쳤고, 『運氣論句解』는 儒學者가 쓴 주석서이며, 『運氣論奧疏鈔』는 漢學에 정통한 儒醫가 쓴 주석서로 醫書, 經書, 史書, 諸子百家書의 모든 서적을 망라하여 주석을 달았으며, 『鰲頭運氣論』은 다른 주석서에 비해 주석이 가장 疏略하고, 『運氣論奧診解』는 한문과 일본말을 섞어서 풀이하여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5. 일본의 운기학은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하여 깊은 연구한 것이 특징인데 이 속에는 天文, 地理, 納音, 曆法, 八卦, 十二律, 十二辰, 二十八宿, 三十六禽, 密日 등이 기술되어 있어 이 방면에 대해서도 대단히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6. 그리하여 玄璞의 『運氣論奧得助圖』, 鵜飼石齋의 『運氣論圖解』, 松下見林의 『論奧辨證』등에서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는 『素問六節藏象論』을 인용하여 日月 운행의 산법을 기술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서적이 香月牛山の 『運氣算法俗解』이고 기타 『運氣算法』, 『運氣算法解』, 『運氣算法口解』 등 運氣算法에 관한 여러 책들이 전해오고 있다.
8. 일본에서 運氣라는 말을 天文, 氣象, 占卜, 曆法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運氣라고 명명된 책을 볼 때에 이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Genbaku. YunQiLunAoKouYi. Ancient book.
玄璞. 運氣論奧口義. 古書.
2. Genbaku. YunQiLunAoDeZhuTu. Ancient book.
玄璞. 運氣論奧得助圖. 古書.
3. Katsuki Gyuzan. YunQiSuanFaSuJie. Ancient book.
香月牛山. 運氣算法俗解. 古書.
4. Matsushita kenrin. YunQiLunAoShuChao. Ancient book.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 卷一. 古書.
5. Matsushita kenrin. LunWuBianZheng. Ancient book.
松下見林. 論誤辨證. 古書.
6. Okamoto ippo. YunQiLunAoYanJie. Ancient book.
岡本爲竹. 運氣論奧診解. 古書.
7. Okamoto ippo. NianZhongYunQiZhiNan. Ancient book.
岡本爲竹. 年中運氣指南. 古書.
8. Ukai Sekisai. YunQiLunJuJie. Ancient book.
鵜飼石齋. 運氣論句解. 古書.
9. Ukai Sekisai. YunQiLunTuJie. Ancient book.
鵜飼石齋. 運氣論圖解. 古書.
10. Unidentified persons. AoTouYunQiLun. Japan.
失名. 鰲頭運氣論. 日本. 武村市 兵衛. 1671.
11. Mayanagi Makoto. The Chronological Table of Japanese Writings on Medicine, Pharmaceutics, and Natural History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square.umin.ac.jp/mayanagi/paper01/ChronoTabJpMed.html>.
12. Mayanagi Makoto. The Chronological Table of Japanese Writings on Medicine, Pharmaceutics, and Natural History [cited on August 22, 2017]: Available from: <http://square.umin.ac.jp/mayanagi/paper01/ChronoTabJpMed.html>.
13. 岩瀬文庫藏書. 和書-文學. 西尾市岩瀬文庫 / 古典籍書誌データベース [cited on August 22,

- 2017]: Available from:
<https://trc-adeac.trc.co.jp/WJ11E0/WJJS06U/2321315100/2321315100100010?hid=ht054100>.
14. 松下見林. 美術人名辞典の解説, デジタル大辞泉の解説,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の解説,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の解説, 大辞林第三版の解説, 367日誕生日大事典の解説,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の解説 [cited on August 23, 2017]: Available from:
<https://kotobank.jp/word/%E6%9D%BE%E4%B8%8B%E8%A6%8B%E6%9E%97-16553>.